

3-31-2017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 : 에티오피아  
명성기독교병원을 중심으로**

Jong Hye Bae 배종혜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배종혜,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 : 에티오피아 명성기독교병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7.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MISSIONARIES AND LOCAL LEAD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IN ETHIOPIA**

written by

**JONG HYE B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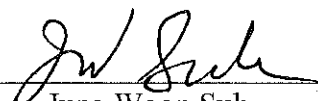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ung Woon Suh

  
Euiwan Cho

March 31, 2017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MISSIONARIES AND LOCAL LEAD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IN ETHIOPIA**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JONG HYE BAE

APRIL 2017

#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서 정 운 교수

배 종 혜

2017년 4월

## Abstract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Missionaries and Local Lead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Myungsung Christian Center in Ethiopia

Jong Hye Bae

Doctor of Ministry

201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 cross-cultural ministry team with local leaders, such as a team working at a hospital responsible for physical and spiritual well-being, faces many difficultie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for pastoral and evangelistic application among such teams.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based on interviews focusing on real cases of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in Ethiopia. Missionaries were interviewed during their visits to Korea, and local church leaders were connected through the missionaries. Interview content included general difficulties of cross-cultural ministry, problems in communication, and cultural factors.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Charles Kraft and Paul Hiebert's concept of unilateral communication, as well as theorized to correlate with communication between supporting church leadership and commissioned missionaries.

Consequently, the major communication hindrances this research found involved adaptability, comprehensibility, and cultural miscommunications. Human, pastoral, institutional, theological, and financial conflicts were also factors. The study then proposed feasible solutions to the possible hindrances to communication: improving relationships, training regarding submission to authority, research on teamwork, missionary renewal/sabbatical, learning inclusive attitudes, and consistent financial reporting, among other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argues that incarnational transformation is necessary in the communicating agents. Rather than forcing one's own communication method, one must be willing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context

of the other. A medical team such as the one this research studied must learn to practice incarnational communication to work together.

Theological Mentors: Jung Woon Suh, PhD

Euiwan Cho, PhD

## 감사의 글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나올 수 있기까지, 지도해주신 서정운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늘 가르쳐 도움이 되는 조의완 교수님, 신웅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목회의 일정 가운데서 모든 학위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사랑과 지원을 배풀어 주신 명성교회와 원로 김삼환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회와 선교사역을 위해 늘 함께해주는 선교동역자와 목회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 수정, 그리고 대견하게 커 버린 아들 요셉, 딸 나민이와 지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년간 제가 공부하는 동안 아내는 큰 수술을 이겨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였고,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음에도, 힘들 때마다 늘 위로가 되어 줍니다. 작년 세빛 명성교회를 개척하여,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동역자로서 늘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제 대학생이 된 아이들은 가정의 어려운 환경을 한마디 내색하지 않고 잘 감당해 줬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준 누님들과, 친지 특히 장인 장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구하며, 자리를 지켜준 믿음의 세빛 명성교회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뒤에서 저를 위해 기도로 지원해 주신 많은 분이 있음에 오늘이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러한 결실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말씀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Soli Deo Gloria

2017년 6월 배종혜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 질문과 선행연구 .....	3
제 3 절 연구 방법 및 개요 .....	4
제 2 장 문화와 의사소통 이론 .....	6
제 1 절 의사소통 이론 .....	7
1. 일반적 의미 .....	7
2. 성경적 의미 .....	12
제 2 절 문화 간 의사소통 이론 .....	13
1. 폴 히버트의 이론 .....	16
2. 찰스 크래프트 이론 .....	19
제 3 장 명성기독병원 의사소통 사례 분석 및 평가 .....	31
제 1 절 명성기독병원현황 .....	31
1. 일반적 개관 .....	31
2. 명성기독 병원 현황 .....	36
제 2 절 명성기독병원의 의사소통 사례 분석 및 평가 .....	43
1. 명성기독병원 의사소통 구조 .....	43
2. 인터뷰를 통한 명성기독병원 의사소통 분석 및 평가 .....	45
가. 인터뷰를 통한 명성기독병원 의사소통 분석 .....	45
나. 인터뷰를 통한 명성기독병원 의사소통 평가 .....	51
제 4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장애요소와 해결방안 .....	62
제 1 절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 .....	62



1.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 간 일반적 장애요소 평가 .....	63
2.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 간 팀으로서 장애요소 평가 .....	64
제 2 절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 .....	65
1. 수용자 중심 원리로서 소통 방안 .....	65
가. 현장 적응력의 부족 해결방안 .....	65
나. 사회적, 문화적 적응의 장애 해결방안 .....	66
다. 한정된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해결방안 .....	67
라. 신뢰성 부족으로 오는 장애 해결방안 .....	68
마. 수용성(이해, 해결)의 부족으로 오는 장애 해결방안 .....	69
바. 문화 간 갈등으로 인한 장애 요소 해결방안 .....	70
사. 인간관계 갈등의 해결방안 .....	72
아. 문화 간 소통 장애 해결방안 .....	74
자. 선교사의 언어의 오용, 오해의 해결방안 .....	75
차. 문화 간 학습의 방안 .....	82
2. 협동의 원리로서 소통방안 .....	83
제 5 장 결 론 .....	89
제 1 절 요약 .....	90
제 2 절 선교적 제언 .....	91
부록 .....	95
참고 문헌 .....	107
Vita .....	111

## 표 목차

<표 1> 외연적, 내연적 문화의 특징 .....	11
<표 2> 세계관 변화의 사용,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23
<표 3> 명성교회 해외 선교사 파송현황 .....	32
<표 4> 명성교회 해외선교부 선교대학 이수자 현황 .....	33
<표 5> 명성기독병원 장단기선교사 파송현황 .....	37
<표 6> 명성기독병원 견습선교사 파송현황 .....	38
<표 7> 명성기독병원 직원 현황 .....	38
<표 8> 명성기독병원 진료과목 현황 .....	38
<표 9> 명성기독병원의 역사 .....	39
<표 10> 우물선교 견습선교사 현황 .....	41
<표 11> 명성기독병원 무료 이동진료 사역 현황 .....	42
<표 12> 선교사 인터뷰 현황 .....	49
<표 13> 현지동역자 인터뷰 현황 .....	49
<표 14> 인터뷰 녹취록 주요 내용 정리 .....	50
<표 15> 명성기독병원 첫 비전과 10년 뒤의 성취도 비교 분석 .....	51
<표 16> 명성기독병원 직원 증감 비교 분석 .....	54
<표 17> 최근 2년간 선교사 증감 비율 분석 .....	55
<표 18> 최근 2년간 현지동역자 증감비율 분석 .....	56
<표 19> 에티오피아와 한국인 신생아 사망비율 .....	57
<표 20> 명성기독병원 사역자 인터뷰 결과에 따른 장애요소 .....	63
<표 21> 팀 사역자간의 장애요소들 .....	64
<표 22> 팀 사역자간 구조적 갈등의 진단과 처방 .....	84

## 그림 목차

<그림 1> 서로 다른 언어권 사이의 범주 .....	17
<그림 2> 바람직한 의사소통 .....	18
<그림 3> 상황, 메시지, 의미 사이의 역동적 관계 .....	19
<그림 4> 후퍼스 (Hoopes)의 문화 간 학습과정 .....	67
<그림 5>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 II .....	69
<그림 6> 의사소통의 문제와 해결 방안 I .....	72
<그림 7> 선교사의 상호소통의 역학적 관계 .....	76
<그림 8> 의사소통의 문제와 해결 방안 II .....	77
<그림 9> 의사소통의 문제와 해결 방안 III .....	78
<그림 10> 한비(Hanvey)의 문화 학습 모형 .....	81

## 제 1 장

### 서 론

####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13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2016년 1월 현재, 약 25,0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한국교회는 받는 입장에서 주는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이 더하여졌다.

2016년 10월 현재 필자는 서울 근교 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을 때의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필자가 선교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은 ‘타문화적 이해와 삶’에 관한 효과적인 목회(선교)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지금의 목회 현장에서도 늘 성도들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과거 선교현장에서의 경험으로 필자는 소통이 선교의 결과물로서만 아니라, 현지 동역자들이나 선교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생각은 필자가 풀러 박사과정에서 배운 ‘삶의 정황’(Sitz im Leben)<sup>1)</sup>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되었고, 왜 소통이 아닌 불통의

---

1) Oxford Biblical studies online, <http://www.oxfordbiblicalstudies.com/article/opr/t94/e1778>, 검색어, ‘Sitz im Leben(삶의 정황)’, 2017년 4월 14일자. 여기서의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단어는 영어로 해설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문화적으로 관계된 특별한 삶을 이해해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이 문서로 쓰이기 전에 구전에 의해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승하였기에 다양한 삶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신약 평론가들조차도 이것을 설명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이유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들을 정확히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러한 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우며, 항상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

경험이 선교지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도 많을까에 대해 늘 고민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데서부터 이 연구의 동기가 시작되었다.

목회현장은 이처럼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교회와 선교의 현장까지 연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는 성도들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세례를 주어’,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선교 현장에서의 소통에 관한 연구’가 결국 ‘선교’에 관한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필자의 ‘목회지’에서 전도할 때도 소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케이스스터디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선교지 병원인 ‘명성기독병원 (MCM: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이하 명성기독병원이라 칭함)’에 관해 연구하게 되었다.

물론 선교현장을 필자의 목회현장과 비교해 볼 때 문화적 성격이나 여러 가지 사례가 다를 수 있지만, 필자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 간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지 사역의 요소인가를 몸소 체험했기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하며, 이는 더 나아가 내가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는 교회의 문화와 교회 밖의 세상 문화와 소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21세기 선교는 더욱더 다양해지며, 더 가까이에서 선교를 느끼고 접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상호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종종 개인적인 해석이 잘못되어 일어날 수 있는 오류로 인해 결국 복음적 해석이 변질될 위험이 있는데, 이로 인해 선교사역의 승패가 달려 있다면, 현장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또한 한국교회가 130년 전 선교사와 소통하며, 받았던 복음의 통로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할 것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얻은 노하우(Know-How)를 목회현장에 다시 적용할 때, 우리는 보내는 자로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에게는 선교사로서 가져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다.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

도의 지상명령을 함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선교 현장을 만들어가고자 함에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 제 2 절 연구 질문과 선행연구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쉽고도 어렵다”란 질문은 나에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와 사탄의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서 연구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봤다: “선교사(목회자)의 사역지는 어디까지인가?” “그 사역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모든 선교지까지 포함한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후원해야 하는가?” 그리고 “후원할 때, 후원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의 장은 어디까지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타문화권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련된 자료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주제로 자료를 찾아보니 김수진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법 연구’을 발견했지만, 필자의 논문과 직접적 연계성이 거의 없었다.<sup>2)</sup> 다음으로 찾은 이노미의 연구논문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는 조금 언급하고 있지만, 선교현장의 케이스 스터디로서의 필자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었다.<sup>3)</sup>

다른 키워드인 ‘의료선교’에 연관된 자료를 찾아봤다. 첫 번째 자료는 의료선교와 연관된 자료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인 서원석 선교사가 몽골선교현장에서 쓴 ‘선교 현장의 상황화와 건강 개념의 변화’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는 몽골사람들의 문화와 세계관을 통한 현장의 문제점과 현장화(상황화) 이론에 관해 다루었고, 이는 나의 논문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4)</sup> 두 번째 자료는 연세대 신과대학 선교학 김상근 교수의 “위대한 치료자(The Great Physician)를 본받아: 의료선교의 현주소와 선교학적 과제”라는 논문은 의료선교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한국 의료선교의 현

2) 김수진,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 이노미,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본 조선과 서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정신문화연구* 제 31권 제3호 (2008).

4) 서원석 선교사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해부학 전공: MAK)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파견돼, 몽골국립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교환교수로 있었고, 몽골에서 연세친선병원을 설립하였다. 서원석, “선교현장의 상황화와 건강 개념의 변화,” 전우택 외, *(의료선교사가 현장에서 쓴) 의료선교학*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주소를 확인하며, 선교지와 의 소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서 선교현장의 전망에 관련되는 연구논문으로 분류하였다.<sup>5)</sup> 마지막으로 전우택 외 공저의 ‘의료선교사가 현장에서 쓴 의료선교학’은 학술지이다. 이 책은 선교사들이 사역한 후 선교현장의 고민을 선교의료의 개념과 이론,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 사례 등에 관해 다루고 있어서 필자는 명성기독병원의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참고할 예정이다.<sup>6)</sup>

이러한 자료는 의료선교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을 관해 연구하는 이 논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선교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간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장애 요소를 통하여 방안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 3 절 연구 방법 및 개요

연구방법으로는 현지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료전문인, 행정 등)와 현지 동역자들을 인터뷰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 평가할 것이다. 인터뷰의 범위는 현지의 사역자들에 국한해 병원 설립부터 지금까지 사역에 임하고 있는 한국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아울러 현지인 동역자들도 인터뷰했다. 연구는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한다. 즉, 질적 연구의 가설을 인터뷰를 통해 문제 제기된 사역자 간의 문제를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인터뷰에 관한 기초 자료는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의 제2권인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방법을 기초자료로 참고해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sup>7)</sup> 질문의 내용으로는 사역자들의 현장 적응과 문화에 대한 갈등 요소와 의사소통 장애 등을 중심으로 했다. 인터뷰 대상자에게 미리 사전 설문지를 주어(부록 참고) 개인적으로 약 40분에서 100분간 인터뷰하였다. 주로 한국에 일시 방문한 선교사와 영구 귀국한 전임 선교사들은 직접 인터뷰했으며, 귀국하지 않은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들은 현지 한국인 사

5) 김상근, “위대한 치료자(The Great Physician)를 본받아: 의료선교의 현주소와 선교학적 과제,” *신학논단* 49 (2007).

6) 전우택 외, *(의료선교사가 현장에서 쓴) 의료선교학*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7) 김구,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2판 (서울: 비엔엠북스, 2011).

역자의 도움을 받아 한글과 영어로 된 질문지를 통한 녹음파일을 전자우편으로 (e-mail) 받아서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를 위해 참고한 자료는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에 관한 자료들이 아직 미미한 관계로 후원본부인 명성교회의 MCM 운영위원회에서 발간한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 백서<sup>8)</sup>를 1차 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명성교회 운영위원회가 가진 추가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구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을 논할 것인데, 1절에서는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개관과 성경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2절에서는 의사소통이론을 선교 신학자인 찰스 크래프트 (Charles H. Kraft)와 폴 히버트 (Paul G. Hiebert)가 연구한 문화 간의 의사소통 이론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의사소통 이론을 명성기독병원의 현장에 적용하고, 혹 추가할 것이 있으면 다른 이론적 의사소통 유형을 연구할 것이다. 다음 3장에서는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의 현황과 의사소통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할 것이다. 1절에서는 명성기독병원이 세워지게 된 동기와 선교적 현황, 2절에서는 명성기독병원의 의사소통의 몇 가지 유형의 구조적 현황을 알아보고, 소통 사례의 분석을 통해 2장의 의사소통의 이론을 적용해 분석, 평가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장애가 되는 요소를 알아볼 것이다. 1절은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장애요소가 어떤 것이며, 현장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논문은 주로 현장의 개인적인 성향을 분석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익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선교사들과 현지 동역자들에게 명성기독병원의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선교적으로 함께 노력하면서 처음 병원을 세운 비전에 맞춰 서로 소통하면서 명성기독병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수용자, 의사소통, 문화

---

8) 명성교회 대외협력부. *MCM 백서* (서울: 명성교회도서출판부, 2015).



## 제 2 장

### 문화와 의사소통 이론

현장의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의사소통일 것이다. 실제로 선교사는 자기 문화에 익숙한 자신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여야 모든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거의 모든 의사소통을 현장에 맞추어 새롭게 배워야 하는 변방인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사들은 선교현장의 필요를 인식하며 준비하기도 전에 사역에 노출되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명성기독병원 사역자 중 전문인 의료사역인의 경우, 고임금 체계에서 오는 현실적 문제로, 그리고 언어소통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 경우, 현장에서 요구하는 짧은 시간의 적응 훈련 기간도 갖지 못한 채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실정에서 선교사가 현장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비단 언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폴 힐버트는 아래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 젊은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무소를 책임 맡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지역 추장의 아들과 함께 미션 홈의 포치에 앉아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얼마 후에 추장의 아들이 그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얼마동안 함께 있었나요?” 그 선교사는 시간 계산을 한 후에 말했다. “약 한 시간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그러자 추장의 아들이 다시 물었다. “만일 당신의 선임자가 아직 여기에 있었다면, 필자가 여기에 얼마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선교사는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추장의 아들은 “한 5분 정도 있었을 겁니다.” 추장의 아들은 또 대답하였다. “당신의 선임자는 필자가 찾아오면 문 앞에 나와 묻곤 했지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요. 나는 내 볼 일을 얘기했고, 그의 대답을 들은 후, 5분 정도 후에 금방 여기를 떠나곤 했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한 시간이나 앉아 있다니요. 나는 시간이 그렇게 빨

리 지나갔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통한 두 선교사 간 즉 후임과 전임의 사역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물론 전임 선교사는 공손하게,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 물음으로써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에 들어가는 등 그의 서구 문화적 틀로 보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그 아프리카인은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준거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또 그의 서구적 질문인 “무엇을 원하십니까? 와 같은 직설적인 물음은 그 상황에서 아무리 공손한 말투라 하더라도, 부족에게는 극단적인 무례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sup>9)</sup>

이처럼 문화가 다른 곳에서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추장의 아들과 후임 선교사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의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현 상황과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준다. 전임선교사의 오류는 현지의 아프리카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선교현장에서 현지의 방문을 받은 주인은 손님이 스스로 문제를 꺼낼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일반상식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정착하여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교사가 이러한 현장의 소통 문제를 알지 못한 채, 사역함으로써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히 알고보고 사역에 임함으로써 효과적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에 필요한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 제 1 절 의사소통 이론

### 1. 일반적 의미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어원인 ‘나누다, 함께하다, 분배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communicare’라는 뜻에서 보듯이 최소 두 사람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언어적 행위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sup>10)</sup> 웹스터 사전에는

9)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Christianity in Culture)*, 임윤택·김석환 공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5), 284.

10) 이창덕 외, *삶과 화법: 행복한 삶을 위한 화법 연구* (서울: 박이정, 2009), 5.

‘전달행위’, ‘전달된 사실이나 정보’, ‘사상이나 의견의 상호교환’, ‘효과적 사상표현을 다루는 예술’로 정의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의사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합’으로 정의 된다.<sup>12)</sup> 의사소통은 인간이 말이나 글을 이용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수립하거나 영향을 끼치려는 과정과 행위이다. 의사소통의 능력<sup>13)</sup>은 상호소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관점은 위의 커뮤니케이션 중 문화를 초월한 비언어적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째,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무엇인가? 둘째, 현지 동역자들과 사역할 때, 서로 이해되지 않는 선교사와의 마찰 요소들을 어떻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자문화권에서 태어나 살아갈 때는 이러한 언어의 중요성이나 자신이 가진 문화적 재산의 표현방식에 거의 구애 받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나 글로벌화된 시대에는 자문화를 가진 자국에서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타국에서 살아갈 때는 다양한 타문화적 표현 언어들을 접하며,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명성기독병원이 세워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수많은 부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명성기독병원 선교사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그들과 소통할 때 언어적 요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의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의사소통 이론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선교사의 삶의 문제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들 사이의 간격(gap)을 조금이나마 좁히고 사역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답을 찾으

11) “Communication”,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79ed., S. V.; 이종우, *선교·문화 커뮤니케이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34에서 재인용.

12)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의사소통’, 2017. 4. 14일자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13)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2015), 102-104.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언어적 능력은 음성학적(phonetic) 지식, 음운론적(phonological) 지식, 형태론적(morphological) 지식, 통사론적(syntactic) 지식, 의미론적(semantic) 지식 등을 포함하는 언어 체계에 관한 지식과 사용기술을 가리킨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언어와 담화가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발화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전략적 능력은 대화할 때, 화자와 청자 간 언어수행상의 변인, 즉, 피로, 주의 산만, 부주의 등이나 언어능력 자체가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일어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말의 스타일 바꾸기, 우회화법 쓰기, 반복하기, 머뭇거리기, 주제 회피하기, 추측하기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수용자를 이해하고 대화의 효과를 높이는 주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려 노력했다.

먼저 의사소통의 원리를 알아보면,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로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매체로 나눈다. 선교현장에서는 발신자(sender)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즉 선교사를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신자(receiver)란 메시지를 받는 사람으로 선교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을 말한다. 메시지(message)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하려는 내용을 말하며, 매체(media)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을 말한다.<sup>14)</sup>

백혜진, 이혜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일면 메시지 혹은 양면 메시지를 구별하여 쓸 때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느 것을 쓸 것인가를 결정할 때, 동시에 소통(Communication)의 맥락을 고려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sup>15)</sup> 계속해서 이들은 메시지 요인은 구조, 내용, 시퀀스(sequence)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조에서는 주장의 순서, 결론의 생략 여부나 추천 내용의 구체성이 포함되며, 내용은 일대일 양면 메시지, 모순 위협성, 예시 대 통계 등을 다루며, 시퀀스 전략에서는 ‘문간에 발 들여 놓기’와 ‘문간에 머리 들여 놓기’등으로 구별되기에, 이러한 요인이 효과적인 설득이론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학자마다 메시지의 구성 요인을 분류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sup>16)</sup>

다음으로 의사소통의 특징을 알아보면,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를 크게 언어적 이해, 즉 듣기와 표현으로 통칭하는 말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및 설득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 화법 위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활동이 아니라 실제적인 발화 상황 안에서 청취자와 화자가 함께 교섭하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이는 상호 교섭적(transactional)으로 창조되는 과정이며,<sup>17)</sup> 언어적 소통에 있어서 이는 비언어적 표현

14) 손창남, *문화와 선교: 영광스러운 복음·효과적인 전달복음* (서울: 조이선교회, 2014), 108-109.

15) 백혜진, 이혜규 공저,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수용자·미디어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6.

16) D. J. O'Keefe, *Persuasion: Theory and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2); 백혜진, 이혜규 공저,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수용자·미디어 전략*, 5 재인용.

17) 이창덕 외, *삶과 화법*, 111-112.

방법에 비해 전달력이 많이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선교사는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자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현장에 마주치게 된다. 언어를 배울 뿐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들, 예를 들어 시장보기, 삶을 배우기 등과 같이 종합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언어적 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모든 의사소통은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음성언어에 수반되는 강세, 높낮이, 억양, 속도, 목소리 크기 등의 준 언어적 특질과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 태도라는 메타 메시지(meata-message)를 함께 전달한다. 이는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라는 뜻으로 실제 대화 내용, 대화 시기와 장소, 분위기,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언어적 메시지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의사소통의 내용적 측면이라면 메타메시지란 ‘어떻게’에 해당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에는 단순히 화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것 이외의 어떤 인간적 관계를 맺는가 하는 관계적 측면까지도 포함하며, 수용자는 이 메타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이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비해 그 표현 방법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전달력도 크다. 침묵과 말할 때 쓰는 음조, 강세, 전달 속도, 목소리의 크기, 억양 등을 포함하는 준 언어, 또한 눈빛, 표정, 제스처, 자세, 신체접촉인 몸짓언어, 공간언어 등이 여기에 속하는 전달요소이다.<sup>18)</sup>

이처럼 우리는 언어로 모든 의사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요소이다. 특히 타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는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요소와 특징을 잘 알고 대처할 때 실제로 의사소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중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더욱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정보 중 약 70%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때, 동작학 (Kinesics), 제스처는 문화가 다른 곳에서의 중요한 언어적 장애 요소가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접성(Proxemics)의 요소이다. 이는 친밀거리(1M 이내), 개인적 거리(45-120cm), 사회적 거리(120-360cm), 공공적 거리는 그 이상을 말한다. 다음으로 정서, 농담, 지배, 의례, 과업 관련의 요소인 촉각성(Haptics), 목소리와 침묵까지도 상당

18) 이창덕 외, *삶과 화법*, 168-190.

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sup>19)</sup> 이는 아직 현지의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선교사는 이미 현지인과 약 50%의 의사전달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비언어적 소통이나, 통역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언어적 문화 간 의사소통 요소는 중요하다.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필자가 사역하던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문화권에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 이유는 그의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열대지방의 근접성은 무더위로 인해 서로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거리임을 고려하면 열대지방의 의사소통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요소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문화 간 학습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며, 상호 수용자적 자세를 갖고 사역에 임할 때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적응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이러한 문제성을 제기한 도표이다.

	외연적 문화(external culture)	내연적 문화(internal culture)
특 징	명시적으로 학습됨 의식적임 쉽게 변함 목적 지향적 지식	비명시적 학습 무의식적임 변하기 어려움 주관적 지식

<표1> 외연적, 내연적 문화의 특징<sup>20)</sup>

모든 사람은 타국의 문화를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문화는 학습되는 것으로 국수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비록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19)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132-150.

20)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68.

## 2. 성경적 의미

성경에서 의사소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커뮤니케이션 원리는 찰스 크래프트(Charles, H. Kraft)의 원리를 통해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자녀들과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계획(Communicational agenda)을 구성, 정립하고 유지하길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야곱,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수의 제자들, 바울 등)에게도 말씀하시며,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벼를 아브라함으로(약 2:23b), 내 마음에 맞는 사람(삼상 13:14b)등으로 표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명령을 내리셨고(창 1:28b, 17:1b), 위로를 베푸셨고(시 23:4b; 사 49:13b, 52:9b), 또한 간청하시며(호 14:마 23:37), 때로는 마음을 되돌리시는 하나님(렘 26:3; 은 3:10)은 예수를 가장 친밀한 대화의 모델로 삼으셨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분으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다. 둘째로 관계응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유지, 수정한 후 응답) 다가오시는데, 아담에게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응답을 기다리고 계셨고, 깨진 관계의 응답을 이끌어내신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의 관계에 세 가지 헌신을 원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해되기를 원하신다. 커뮤니케이터가 되려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도를 수령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언어, 문화, 그리고 인간의 형태로 교량을 건너오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이해되기 위해서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하셨다. 때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감동적인 전달 수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며(왕상 19:11-12), 메시지가 전달되는 형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에 존재하나 평범한 메시지에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그들에게 이해되기 위하여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이다.<sup>21)</sup>

21) Charles H. K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36-40. 그는 경청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아담의 잘못을 보시고 바로 징계하시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부르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을 함으로써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돌

다음으로 성자의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절정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다(마 1:23). 항상 커뮤니케이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는 지상에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한없이 부드럽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드러내셨다. 결국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선교사의 항구적인 모델이며, 성자의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능력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셨고(막 1:35; 마 14:23), 아버지 품 안에 거하여 인격으로 아버지를 나타내셨고(요 1:2, 18), 마지막으로 문화와 일상사를 예리하게 관찰하여 진리의 유비를 발견해 내고 메시지 전달에 적용하셨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는 주로 사람의 마음에 세워진 문화적 장벽을 넘기 위하여 수신자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이론(receptor's oriented communication theory)을 주로 다룬다. 칼빈은 성령을 “진리의 영”(요 14:17), “식별의 영”(요 20:3), 우리의 “내적 교사”라고 하여 성령의 비취주심이 곧 우리의 통찰력이라고 하였다.<sup>22)</sup>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의사소통은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한 성육신적 소통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 간 의사소통의 이론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일반적 의사소통의 이론을 알아보자.

## 제 2 절 문화 간 의사소통 이론

선교사의 삶의 영역은 늘 타문화권이다. 그는 의사소통할 때 문화와 문화의 연결고리 하에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알아보는 것은 현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선교사에게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한 인간 집단에서 공유되는 관념, 상징, 행동, 가치관, 신념 등과 같이 삶의 총체적인 양식을 말한다. 또한, 인간 집단이 그들의 생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창조한 상징 제도 혹은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로 정의되기도 한다.<sup>23)</sup>

문화인류학자인 폴 히버트(Paul G. Hiebert)는 문화를 “관념과 감정과 가치의 통

---

아보게 하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소통의 언어를 선택(행위의 잘못을 깨우침, 핑계 등)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22) 이종우, *선교·문화 커뮤니케이션*, 92-99.

23)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2014), 165.



합된 체계 및 이와 연관된 행위의 형태와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조직하고 규칙화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하여 공유된 산물”<sup>24)</sup>로 정의한다.

문화는 학습되기에 누구나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타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단지 느릴 뿐이지 적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문화의 중요한 요소는 ‘행동양식’(patterns of behavior)과 ‘개념’ (concepts)과 ‘산물’(outputs)의 ‘통합된 체계’(integrated system)라는 점이다. 사람은 마치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자기 문화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다른 문화를 만나면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고 설명한다.<sup>25)</sup>

문화 간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란 무엇인가? 이 용어는 문화적 가변성과 다양성이 개인 상호간의 의사소통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말한다. 의사소통, 사회 스타일, 세계관, 관습, 기대, 규율, 역할, 그리고 신화의 차이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sup>26)</sup> 선교사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세 가지 모델의 문화에 관련이 있는데 헤셀그레이브는 선교사의 문화와 수용자의 문화 그리고 성경문화를 통해서만이 현지인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선교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현지인들과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선교사는 메신저이고 대사이며, 결코 근원자가 아닌 이차적이다. 그러기에 선교사가 진입하는 다른 문화는 채용된 문화(adopted culture)이지 결코 선교사의 토착문화(native culture)가 아니기에 선교사는 항상 성경의 메시지를 연구해야 하며, 그런 후에야 의사소통된 바의 기독교 메시지를 받아 수용자에게 문화를 전수하게 된다. 선교사는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자신만 수용할 뿐 아니라 타인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고 준비시켜야 한다.<sup>27)</sup>

다음으로 찰스 크래프트(Charles H. Kraft)는 타문화적 관점은 자신이 속한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눈 경험들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통찰을 말하면서, 선교사가 자신의 문화적 관점으로 타문화를

24)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의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6), 41.

25) 손창남, *문화와 선교*, 25-26.

26) Carley H. Dodd. *문화를 초월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임헌만 역 (서울: 그리심, 2008), 19-20.

27) David J. Hesselgrave, *선교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채은수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3), 9-21.

바라보는 것은 타문화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에 선교사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간 국가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독특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연구와 발견한 것을 토대로 상호 비교하여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sup>28)</sup> 또한, 선교사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하셨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선교사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넘어 인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라고 부르셨다고 크래프트는 말한다.<sup>29)</sup> 문화구조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선교사나 현지의 사역자 모두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이 주창하는 관계와 가치로 인해 그 현지의 문화적 시각이 왜곡되기도 한다. 또한 옛 문화 체제와 현장의 사회질서는 때로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끊임없이 대항하는 요소로 남게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관습들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때, 문화 구조 자체가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sup>30)</sup> 그렇다면,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가능한 기독교의 의사소통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지 문화의 ‘적응’(accommod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현지 상황에 맞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sup>31)</sup> 선교사의 의사소통 중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겠지만, 문화적 요소는 너무나 큰 문제를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인간이 자국에서의 의사소통의 문제에서는 그리 어렵지를 느끼지 않겠지만, 선교사로서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다르다. 그 이유는 아직 미처 모르는 현지 문화의 학습적인 어려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지에게 초청받아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

28)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인류학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안영권, 이대현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6), 44-45.

29)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인류학*, 454.

30)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인류학*, 85-97. 그는 부연하여 설명하기로, 인류학에서는 우선적으로 비서구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여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해당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을 타문화적 관점이라고 한다.

31) David J. Hesselgrave, *선교 커뮤니케이션*, 23-25. 그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부연하여 설명한다. 이 방법 중에는 채용(adoption), 토착화(indigenization), 문화화(inculturation), 그리고 상황화(contextualization)등으로 표현하며, 이는 문화적 기독교 의사소통의 좋은 방법이다.

한 사전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소통을 할 수 없으며, 현장적응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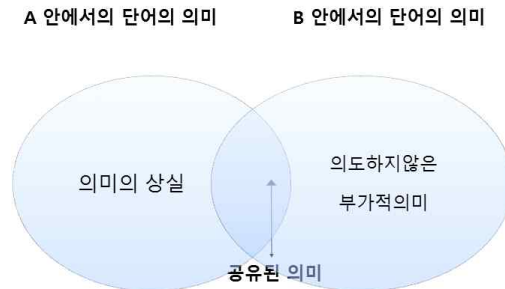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론을 선교신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 앞으로 필요한 이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폴 히버트의 이론

선교사가 타문화권에서 생활하며 현지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메시지 자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모든 사회는 각각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 있으며, 그러한 방법들은 그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나타난다. 따라서 문화권을 뛰어넘는 번역이나 의사소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효율적인 의사전달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만약 잘못 사용하면 전달과정에서 복음을 오해하거나 왜곡시키고 선교사역 자체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의 차이가 메시지에 영향을 끼치기에 발신자 스스로가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사 전달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메시지 자체는 본래 의도하는 바가 가장 덜 훼손되도록 번역하여 전달해야 한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전달될 지역 문화의 형식(form)으로 현장화되어야 한다고 본다.<sup>32)</sup> 의사전달은 정보를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중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달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상징(symbols)”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심지어 기계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별들은 꿀이 있는 방향에 관해 상호 의사전달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의사전달이 아니라 인격적 의사전달, 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전달인데, 이것이야말로 선교 사역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의 핵심기능은 바로 의미와 감정을 그것이 표현되는 형식과 연결시켜준다는 점이다. <그림 1> 을 설명하자면, 만약 서로 다른 언어권 사이의 대화자의 범주는 아주 조금만 의미

32)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199-200.

가 공유된다. 이러한 공유된 의미가 함축되면, 아무리 발신자가 수용자에게 잘 설명한다고 해도 의미의 상실과 의도하지 않은 부가적 의미가 추가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33)</sup>



<그림 1> 서로 다른 언어권 사이의 범주<sup>34)</sup>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터들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이는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메시지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음을 느낄 때만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에는 많은 일이 동시에 발생하여, 우리가 목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지를 상징(symbol)으로 부호화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해독한 후에야 반응을 보이기에 이 모든 것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쌍방을 오가며 이루어진다. 의사소통할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되문기도 하면서 또 새롭게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하며, 정보를 다시 얻어 의미를 얻기도 한다고 폴 히버트는 말하고 있다. <그림 2>는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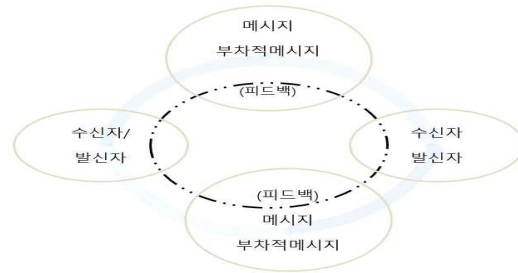
하나님의 의사전달은 상호 작용적인데, 예수님이 독백식의 일방적인 의사전달을 거의 시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의사 전달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마치 일방적인 설교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권장하는 것은 잘못을

33)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221-222.

34)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222.

35)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225.

범하는 것이다.<sup>36)</sup>



<그림 2>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쌍방향 <sup>37)</sup>

찰스 크래프트 또한 의미란 자명한 것이거나 혹은 사물이나 사건을 분석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 현실이란 분명히 감지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에 자기가 속한 집단의 문화 형태와 집단에 따라 사물을 각각 다르게 이해한다고 설명하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쌍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up>38)</sup>

폴 히버트는 다음의 세 가지 면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첫째 인지적인 면에서 정보와 의미를 전달하고, 감정적인 면은 자신의 느낌을 나누는 것이다. 또 가치판단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것을 수용한다든가 질책한다든가 하는 판단을 전달하는 것인데, 의사소통할 때는 이 세 가지 면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만 간주하면 틀린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수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up>39)</sup> 그래서 수용자 중심의 의사소통에서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수용자가 아닌 발신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대방이 우리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전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메시

36) 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Jesus, God's Model for Christian Communication*), 김동화 역 (IVP, 2001), 32.

37)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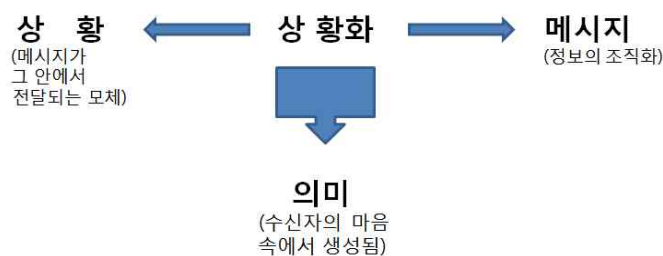
38) 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90-91.

39)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233.

지를 전달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찡그린 얼굴, 화난 몸짓, 어조 등은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더 많은 감정이나 가치를 전달하게 되기에,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sup>40)</sup>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경우, 우리는 피드백을 신경 쓰기보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만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은 무관심한 것이 문제가 된다. 결국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듣는 훈련에서 시작된다고 스티븐 니얼(Stephen Niel)이 언급하고 있다.<sup>41)</sup>

결론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발신자는 자신이 메시지를 던져놓고 난 후 수용자의 피드백을 살펴야 하며, 만약 수용자가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늘 살펴 상대방의 반응에 관심과 신경을 써야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폴 히버트는 말한다. 특히 이러한 두 문화 간의 대화의 상황은 더 많은 의미의 상실이 있기에 항상 쌍방의 모든 의미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찾아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호소통은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기에 찰스 크래프트의 이론을 통해, 효과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다음에 알아보고자 한다.

## 2. 찰스 크래프트 이론



<그림 3> 상황, 메시지, 의미 사이의 역동적 관계<sup>42)</sup>

40)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225-245.

41)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234.

42) David, Hunter and Mary Ann Foley, *Doing Anthropology* (New York: Harper & Row, 1976);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241에서 재인용.

기독교와 문화에서 정보와 상황과 의미는 서로에게 분리될 수 없도록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sup>43)</sup> 이는 결국 우리가 접촉하는 문화가 어떻게 다른 문화의 세계관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기독교 변혁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수용자에게 이해되는 정보의 조직화된 몸체인 메시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그림3>에서와 같이 첫째, 어떤 상황인가? 커뮤니케이션이 원래 발신자의 상황인가?, 아니면 수용자의 상황인가? 둘째, 메시지와 상황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의미에 메시지와 상황이 각각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질문하면서, 해석자는 메시지와 함께 어떤 상황을 해석하여 정확한 의미를 결정한다. 하지만 발신자가 의도한 의미로부터 전해지는 생성한 메시지와 원래의 상황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믿는 것과 성경 해석자나 메시지의 의미의 해석자는 다른 문화적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메시지들로부터 즉시 의미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건화된 해석학적 반사 신경들에 의해 처음의 의미가 방해를 받는다. 이러한 방해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해석자는 주어진 상황을 메시지처럼 가능한 철저하게 다루고 분석해야 한다.<sup>44)</sup>

크라프트는 의사전달의 가장 중요한 연구를 성경에서 찾는다. 예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는 설교자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으면서도, 전달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에서 찾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의사전달을 위해 다리의 양쪽 끝에 있는 상호 간격과 그것을 메워주는 다리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 전달 방법은 서로 간 양쪽 끝에 있는 예수님의 본보기를 잘 따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sup>45)</sup> 그러므로 우리는 수용자가 말하는 다리의 반대쪽에 있는 발신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중요시해야 한다. 그는 연하여 발신자 신뢰성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이는 메시지의 신뢰성과 영향력을 더욱 확실히 높여주는 것은 수용자의 삶에 대한 구체성을 말하기도 하며, 또 동시에 한 인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46)</sup>

43)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241.

44)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242.

45) 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9-10.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친숙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수신자가 반응하도록 접근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들은 수신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성육신적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격언들, 금언들,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전달될 때는 될 수 있는 한 상황에 맞게 구술로 해야 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비유가 바로 그 사실적 생활 속의 이야기들에 해당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들은 실제 생활 속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이다.<sup>47)</sup>

다음으로 그는 수용자 중심에 필요한 소통의 중요성으로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예를 든다. 어떤 특정 문화 속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의 임무는 우선적으로 그 문화의 개념적 체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즉 기독교가 가진 초문화적 진리를 특정 문화의 세계관에 전하여줌으로써 변혁을 성취하게 된다.<sup>48)</sup> 기독교 현장화, 즉 상황화는 하나님의 인격, 사역, 말씀 뜻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반응자 각각의 문화와 실존 상황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려는 시도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복음의 전달자가 수용자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세계관에서 생각하고 고찰하기 시작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사고유형과 내면의 의미에 흠뻑 젖어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사소통방법인 ‘수용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배워야 한다.<sup>49)</sup>

다음으로 의미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모두가 사물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이해한다는 찰스 크래프트의 견해이다. 그 이유는 자기 주변의 현실에 부여하는 해석은 그 상황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관찰하고 그것을 말로 묘사하는데, 이러한 언어 표현이나 상징들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sup>50)</sup>

46)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278.

47)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270-278.

48)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558.

49) Charles H. Kraft,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성육신과 상황화 원리 (Appropriate Christianity)*, 김요한 외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298-299. 의사소통 관점이라는 것은 스티븐 베반스는 상황화 신학의 “번역모델”이라는 용어와 같은 입장이며, 상황화는 언어적, 비언어적 방식 모두를 포함하며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와 에드워드 로먼(Edward Rommen)은 유진 나이다(Eugene Nida, 1960)의 세 가지 문화 모델을 인용해서 상황화에 있어서 의사소통 국면을 강조했다.

50) 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90-91.



타문화권에서는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종종 오해할 수 있다. 주창자의 역할을 문화의 내부자들만이 문화를 변혁한다고 보고, 문화 밖의 주창자인 문화의 외부자들의 중요성을 잊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적 변혁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주창하거나 설득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까지도 포함하여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타문화권에서 자신이 가진 문화권에 젖은 선교사는 다음의 다양한 성향을 나타내는데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문화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문화적 관습들은 적절한 문화적 상황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성경에 계시된 초문화적인 윤리 기준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방향으로 변화해 가도록 돕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관<sup>51)</sup> 내의 주변적 부분보다 핵심적 부분에서 최소한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고무시켜야 한다. 셋째, 어떤 사람들이 여론 선도자인지 찾아내어, 그들에게 그들의 관점을 바꾸도록 호소하고 그 사회에 속한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 넷째, 변혁적 변화는 개인보다 집단들에 의해 주창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시간적 요인(time factor)으로 동시에 효과적인 변혁이 되려면 그 변혁이 사고와 행동의 양 차원에서 모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관 내에서 최소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계획하며,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진 후 많은 동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선도자에게 먼저 변화를 호소한 후, 한편으로 대상자들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제공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변혁적 변화를 위한 준거 기준으로서 성경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표2>는 찰스 크래프트의 수용성에 관한 것인데, 세계관이 취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입장은 개별적인 요인들과 집단화된 요인들과 관련된 또다른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유래된 아이디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 그룹의 태도와 행동에 세계관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만일 수신자의 세계

51) 전우택 외, *의료선교학*, 144. 여기서는 세계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세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관점’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를 비롯한 유물론자들은 ‘이데올로기’라는 말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체계를 설명하여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였다.

관과 주창자들의 세계관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우, 변화가 수용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증대되며 전제가 같을 경우, 수신자가 변화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아지게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관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들은 다른 집단들보다 타문화적 소통에 더 개방적일 수 있고, 오히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체제는 변화 자체를 믿는 경향이 있어 변화의 추천자들이 외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변화에 대한 권고를 쉽게 수용한다. 52)

요인들	수용에 방해적	수용에 가속적
1. 소스와 수용자 세계관에 대한 기본 전제들	매우 다름	매우 유사함
2. 자신의 문화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매우 긍정적임	매우 부정적임
3. 소스 문화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경멸	존경
4.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폐쇄적	개방적
5. 현재 변화의 속도	완만한	급속한
6. 전통 계승	거부	자유롭게 계승
7. 도덕	자부심	도덕적 붕괴
8. 자기충족성	자기충족성	자기충족성에 대한 회의
9. 안정성	위협받음	안정적
10. 유연성	저항적	적응적
11. 옹호자	무명의	유명한
12. 아이디어와 절실한 필요와의 관계	절실한 필요와는 무관하다는 인식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인식
13. 아이디어의 적절성	현재의 세계관과 불연속적	현재의 세계관과 적합함

<표 2> 세계관 변화에 따른 수용,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sup>53)</sup>

수용자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또하나의 방법은 ‘상호 관계적’(interactional)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주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지금도 간격이 있다.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분리된 준거 기준들 안에 존재하며,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상황에 의해 제한받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해

52)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573-584.

53)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582.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해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하시는가에 따라 수신자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며, 원하는 의미들이 수신자의 머리 안에서 생성되도록 수신자를 자극하시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사실을 인식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신자 지향적이라고 찰스 크래프트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메시지를 영향력 있게 제시하시고, 개인 대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수신자의 준거 기준 안에서 제시할 때 하나님은 신뢰성 있는 인간 발신자들을 이용하신다. 인간 발신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수신자들의 삶과 연결시키며, 수신자들이 스스로 계시적인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sup>54)</sup>고 그는 주장한다.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구하는 사람들은 호의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 되기에, 수용자들이 작용하는 정황은 모든 의사 전달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수용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사는 준거 집단<sup>55)</sup> 또는 틀(문화구조, 상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의사전달의 기본원리 10가지를 열거하면서 ‘수신자 관련 구조’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용자 방향(Receptor-Oriented)의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수용자의 특징은 첫째, 집단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늘 고려하여 생각하여야 하며, 의견이나 행동의 변화를 요하는 욕구가 생길 때면 ‘필자가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sup>56)</sup> 둘째로, 준거 집단을 논할 때는 수용자들은 이미 집단과 그 집단의 가치에 헌신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다. 셋째로 메시지는 수용자들의 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의사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수용자가 갖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용자가 감지하고 있는 필요에 호소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 전달에서 아주 중대한 일면을 차지한다.<sup>57)</sup> 그러므로 수용자들이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

54)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291-292.

55)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323. 준거집단의 용어를 부연하여 설명하면, 1942년 미국 사회심리학자 하이먼(H.H. Haimen)의 논문 ‘지위의 심리학’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데,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및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데 준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일종의 사회집단을 말한다. ‘준거집단-예로 가족 구성원, 가까운 친구, 이웃, 사회집단의 구성원, 교회 친구,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는 조상이나 지금 살아있지 않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56) 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69-70.

것은 잘못된 것이며, 수용자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석하며 응답한다. 그들은 마치 스피치와 같이 흡수하는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이다.<sup>58)</sup> 그는 발신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수용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데, 그는 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목적은 발신자에 의해 제시된 메시지를 발신자의 의도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 의미들은 전해지지 않고 오직 메시지들만 전해진다. 왜냐하면 “의미들이 메시지 안에 있지 않고 메시지의 사용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자극에 대한 내적인 반응들이다.”<sup>59)</sup> 이는 수신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발신자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며, 발신자가 수신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되는 메시지들은 거기에 사용되는 상징들이 수신자에게 바람직한 효과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기에 이것은 수신자의 몫이다. 넷째로,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sup>60)</sup>’으로부터 유래하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은 목소리, 몸짓, 또는 인쇄된 상징들을 보내고 받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다.<sup>61)</sup> 다섯째로는 발신자, 메시지, 수신자가 동일한 상황, 환경, 또는 준거 기준에 참여할 때 가장 효과적 커뮤니케

57) 마19:16-22절의 젊은 부자와 막 10 :46-52절의 눈먼 바디매오, 요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예로 들 수 있다.

58) 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72-73.

59) David K. Berlo,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Bernard, Duch,1960):187), Kraft, Charles H.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268에서 재인용.

60)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228, 239.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 집단, 단체들이 서로 관련성을 갖고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말한다. 모든 상호작용은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인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순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유형은 크게 협동, 경쟁, 갈등 등 세 가지가 있다.

61)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257-264. 여기서는 신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신뢰성은 마치 가족처럼 오래된 인간관계일수록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는 다양한 메시지들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가 특정 준거 기준 내에서 존경받는 한 인간으로서 신뢰성을 얻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의사, 성직자, 전문가, 외국인, 바보, 우둔한 사람, 상류 계급의 사람들과 같은 경향으로 예를 들어 말한다.

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동일하지 않은 문화적 상황 하에서는 메시지 안에서 사용된 상징 중의 일부를 참여자들이 다르게 이해할 것이 분명하며 만일 수신자의 준거 기준이 선택되면, 발신자는 그 준거 기준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배워야 하기에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가 수신자의 살아가는 삶에 구체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수신자가 이해할 때, 수신자가 발신자와 동일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수신자 중심의 메시지 전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신자와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적절한 영향력을 가질 때, 수신자는 그 양자로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반응한다. 또 메시지가 높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메시지는 수신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으로 수신자에게 인식돼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sup>62)</sup>

문화 간 의사소통 방법으로 메시지와 기술에 있어서, 유능한 커뮤니케이터들은 또한 자신들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나 기술의 선택에 유념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최소한 세 가지로, 청중의 대인 관계 유형, 소집단 유형, 그리고 공개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대개 독백(monologue)이다. 다음으로 소집단에게는 보통 대화(dialogue)나 토론의 접근방법이 가장 만족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작은 집단들이나 개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삶의 관계(또는 삶의 연루: 박영호 역:life involvement)가 있는데, 이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정해진 규모의 청중과 상황 또는 특정한 메시지 유형에 따라 효과적이라고 크래프트는 말한다. 그러나 커뮤니케이터는 청중이 전달되는 메시지와 함께 사용되는 전달방법을 해석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며 전달 방법이 메시지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은 방법과 메시지와 상황 간에 조화가 부족할 때로 본다. 커뮤니케이터가 대화를 시도할 때, 만약 메시지의 여러 유형을 알고 전달할 때가 최대의 상호소통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효과적 부호와 내용과 표현법에 따라 수령자들의 정황 가운데에서 바람직한 충격을 주는 메시지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달 방법인 ‘삶에 동참하는 방법’은 의사 전달자와 수용자가 장기간 삶의 여러 상황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대체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서 말로 표현하는 것에 크게

62)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257-264.

의존하지 않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제자도(discipleship)와 도제 훈련(apprenticeship) 등이 이러한 의사 전달 방법의 예가 된다. 그는 이러한 방법적인 것이 어느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적합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sup>63)</sup>

의사 전달은 전달자와 수용자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의사 전달 상황에 관련된 해석을 수용자가 하고, 그 해석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부연하여 설명한다면 수용자의 의미 구성 활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들의 메시지와 의미의 주된 차이는 메시지는 언어 형태로 전해질 수 있지만, 의미는 사람들의 뜻과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메시지로 대화할 때 전해지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메시지’이기에 혹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간에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메시지는 상호관계성이 중요한 영향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4)</sup>

커뮤니케이터들, 즉 수령자들은 많은 유형(style)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몇 가지는 동일한 수단을 즉, 예를 들어, 언어, 음악 등을 같이 사용하지만, 매우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첫째 메시지 유형은 양식화(stylized) 또는 의식적(ritual)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정보 메시지(informational message)는 수령자의 지식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면에서 정보의 전달과 수령을 포함하며, 정보를 얻는 자체를 높이 평가한다. 셋째로 설득의 메시지(persuasive message)의 범주에는 사람들의 태도, 사상, 그리고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들이 속하는데, 공개적인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종종 수령자들의 감정에 호소한다. 넷째로 도구적 메시지(instrumental message)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의도하는 것인데, 직간접적인 요청 등을 포함하는 메시지 유형이다. 다섯째로, 다른 메시지들에 대한 메시지, 즉 전이 커뮤니케이션<sup>65)</sup>(metacommunication)이라고 칭하는 커뮤니케이터와 수령자 모두가 사용법을 알고 배

63) 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127, 133-134.

64) 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75-78.

65) 이 유형은 빈정거리는, 위협하는, 농담적인, 흥분적인 어조, 공간의 사용(친밀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깝게 다가서는 행동),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 약속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 등을 통한 파라메시지들로 전달된다. 이는 방지(preventive)라고 불릴 수 있고, 두리번거리는 눈길, 불안한 태도, 불편한 거동, 특정한 손동작, 냉정한 어조, 조바심하는 태도, 기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을 필요가 있는 메시지 유형들이며, 이러한 유형이 적절히 필요에 따라 사용되지 않을 때 메시지가 전하는 충격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메시지의 유형들은 청중의 규모, 그리고 선택된 방법들과 직접적인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두 사람 간의 대화이다. 다시 말해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수령자로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때, 더 많은 정보는 주고받을 수 있으며, 대화에서 실패할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sup>66)</sup>

하나님께서서는 철저히 수신자 지향적 입장을 취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인간을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수신자들 편에서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시기 위해 먼저 정확하게 자신을 이해시키시는 것이다.<sup>67)</sup>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성경적 이론 중, 성부의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소통적인 대화적이기에, 필자는 두 문화 간의 사역자들인 한국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들의 사역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용자 중심의 소통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병원에서의 의사소통의 특수한 상호소통에 관련된 이론까지도 함께 다루기 위해서 다음의 상호소통의 원리를 추가하여 이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두 학자의 견해는 상호 소통적 이론에서 수용자 중심적 이론을 우선한다. 여기서 필자는 추가로 다음의 원리를 추가하고 싶다. 먼저는 수용자 중심의 이론인 모유 수유의 원리이다. 다음은 여기에 몇 가지 상호소통의 원리로 연관된 이론을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로, 김선희는 모유 수유를 받는 아기와 산모와의 소통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유수유란? 모유수유를 통해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 발전과 어머니와 아기의 요구를 서로 만족시키는 복잡한 과정이다. 여기서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는 몇 주 동안 수유와 관련된 아기의 신호, 감정, 수면 양상을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모유수유는 아기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아기의 모유수유 적응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는 수유를 받는 아기를 위해 ‘모유수유 자가 평

66) Charles H. K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109-118.

67)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624.

가<sup>68)</sup>를 직접 평가함으로써 모유수유 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자신감을 갖고 모유수유를 계속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나 지지자원을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sup>69)</sup>

김선희는 연하여 말하기를, 참된 소통을 위해 어머니가 수유방법을 최종 결정하는데 그 전략은 ‘다져나가기’이다.로서 가족과 친구 등 주위 사람과 계속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결정이 맞고 틀렸는지 주변의 유경험자 혹은 친지들에게 물으면서, 지속적으로 모유 수유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결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점차로 선택한 수유방법에 대해 실천방안이나 대안 방법을 모색하고 자신의 결정을 확신할 때 최종 모유 수유를 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모유 수유 방법과 인식과 이후의 상호전략이 모유 수유의 당위성과 사회적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처음 수유방법을 고려할 때, 직장, 수유에 적당한 유방 상태, 체질, 수유를 관찰한 경험 등의 어머니 주위의 상황적 조건이 아기의 수유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의사소통 검토하기, 강화하기, 확고함을 통해 다져나가기로 나타났다.<sup>70)</sup>

둘째로, 의사소통의 원리 중 협동원리(cooperation principle)가 있다. 만약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이 있다. 즉, 성공적인 합일점을 찾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목표 문

68) 일반적으로 아기가 모유 수유를 하는 초기 가장 어려운 4-6주가 자났다면 일반적으로 수유율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July 5). 200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Nutrition survey. Retrieved October 12, 2007, from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BOARD\\_ID=140&BOARD\\_FLAG=&CONT\\_SEQ=38330&SEARCHKEY=TITLE&SEARCHVALUE=국민건강양&CREATE\\_DATE1=&CREATE\\_DATE2=](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BOARD_ID=140&BOARD_FLAG=&CONT_SEQ=38330&SEARCHKEY=TITLE&SEARCHVALUE=국민건강양&CREATE_DATE1=&CREATE_DATE2=) 를 참고하라.

69) V. H. Moran, K. Dinwoodie, R. Bramwell, & F. Dykes, “A Critical Analysis of the Content of the Tools That Measure Breastfeedinginteraction,” *Midwifery* 16 (2000), 260-268, Academy of Breastfeeding Medicine Korea, *New Mother's Guide to Breastfeeding* (Seoul: E\*PUBLIC, 2006), C. L. Dennis, & S. Faux,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Testing of the Breastfeeding Self-efficacy Scal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2 (1999), 399-409를 참고하라. 김선희, “모유수유 적응 측정 도구 개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2 (2009), 259-261에서 재인용.

70) 정금희, 김신정, “어머니의 수유방법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2 (2000), 207, 209, 213.



화의 태도, 지식, 상호작용의 기술 등과 같은 매개변수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 시, 화자 간 사고의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 및 문화 간 차이를 좁혀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견을 위해 서로 동일하게 노력하여 협력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원리이다.<sup>71)</sup>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본 다양한 의사소통이 문화 간에 일어날 때,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일어나는가? 또한 의사소통의 다른 사람의 관점은 상호간에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등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의사소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일단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관점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처럼 문화 간 의사소통에는 의미의 전달과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sup>72)</sup>

우리는 지금까지 의사소통 이론에 관해서 몇 가지 경우를 알아봤다. 필자는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명성기독병원의 사역자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소통의 길 위에서 효과적 사역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명성기독 병원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역자들이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이해와 충분한 의미전달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다음 장에서는 사역자 간의 소통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71)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151.

72)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114-130.

## 제 3 장

### 명성기독병원 의사소통 사례 분석 및 평가

명성기독병원은 2001년 명성교회에서 세운 병원이다. 명성교회는 단독으로 후원회를 만들어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다. 파견 선교사들은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 여기서 명성기독병원의 의사소통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병원의 사역자들과 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필자는 명성기독병원의 태동에서부터 시작된 병원의 운영철학과 이념을 알아보고, 선교사와 현지인 간의 의사소통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제 1 절 명성기독병원현황

##### 1. 일반적 개관

일반적으로 개교회의 선교부서는 국내외 선교로 분류한다. 이러한 이유는 국내외 선교사역의 범주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성교회<sup>73)</sup>의 경우 새벽기도로 교세가 초대형 규모로 성장했고 운영 면에서 조금 특이한 면이 있다. 명성교회 해외선교부<sup>74)</sup>는 국내외선교를 해외선교부서 중 하나의 부서로 묶고, 나머지 사회부의 복

73) 2015년 명성교회 정책당회, 명성교회, 2016), 7-13.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현재 명성교회는 재적 102,419명으로 세례교인이 54,257명이며, 평균 주일 예배출석이 교회학교를 포함하여 48,590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매주 새벽기도(1-4부 예배)에 매일 평균 6,543명이 출석하며, 매주 토요일은 평균 10,230명이 출석하고 있는 초대형 교회이다.

74) 명성교회 선교부는 국내외 선교를 15부서로 나누어 사역하는데, 해외선교위원회, 선교운영위원회, 농어촌선교위원회, 개척선교위원회(국내 미자립 교회지원과 개척교회 및 교회개척 분립사역 등), 의료선교위원회, 이삭 나눔(구제)위원회, 군선교위원회, 자산관리처, 특수선교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디아스포라부, MCM운영위원회, 우물선교위원회, 마닐라아카데미운영위원회, 캄보디아국제아카데미로 나뉘어 사역에 임하고 있다.

지와 장애우 등 국내에서의 프로젝트 사역을 또하나로 묶어 사회부<sup>75)</sup>로 분류한다. 이 밖에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선교사 자녀학교(Manila HanKook Academy)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명성교회는 자체적으로 국내에 3개의 병원(위탁병원까지 포함하여)을 직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성교회는 명성기독병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여기서 명성기독병원 사역 편의상 명성교회 선교현황을 일반적인 개관과 해외선교 현황으로 나누어 알아보겠다.

선교사	국가	가정	인원
파송	33	56	107
협력	51	112	208
견습전문인선교사	3	35	38
현지인 개척사역자 <sup>76)</sup>	11	90	171
전체	63개국	293가정	534명

<표 3> 명성교회 해외선교사 파송 현황 77))

위의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명성교회는 2015년 8월 현재 자체적으로 63개국 293가정 534명을 파송하여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한 교회가 파송하기에는 적지 않은 숫자를 지원하고 있는 점은 선교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아래의 도표는 명성교회 해외선교부가 지금까지 훈련하여 선교지에 보낸 견습, 전문인 선교사<sup>78)</sup>들의 현황표이다.

75) 명성교회의 사회부의 특징적인 사역은 국내 3개의 병원을 포함하여(안동성소병원, 청송, 영양병원) 농아사역위원회, 사랑부(지체장애), 홀 사모를 돕는 가나안의 집 등이 있다.

76) 명성교회에서 파송하여 현지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현지 동역자 100인을 2012년부터 선정하여 2015년 현재 171명의 현지 동역자와 협력하고 있다.

77) Love Ethiopia, *Love Africa*, *명성해외선교*, (MCM 위원회, 2011), 38. 2015년 8월 현재 명성교회가 파송, 또는 협력 지원하는 선교현황임,

78) 견습선교사란 1년-2년까지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이를 말하며, 전문인 선교사의 파트도 지원하여 간호사 행정, 운전과 또한 한인교회의 주일학교 사역자로 다양한 사역의 경험을 위한 선교초년생들을 칭함.

내용	년도 분류	1999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선교대학 수료자	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성도		158	193	103	48	128	65		51	
	청년		118	245	88	61	64	45	?	26	
	합계		276명	438명	191명	109	192	110		77명	1,393명
견습 전문인 수료자	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수료자			26명	36명	33명	51명	56명	32명	?명	234명
	지원서 제출자			24명	34명	15명	66명	67명	35명	명	
파송	전문인		7명	6명	7명	7명			15명	?	
	견습		5명	5명	10명	4명			17명	?	
	계		12명	11명	17명	15명			32명	?명	87명

<표 4> 명성교회 해외선교부 선교대학 이수자 현황<sup>79)</sup>

명성교회 해외 선교부의 선교교육 훈련원의 실적(1999년-2010년)으로는 약 10여 년에 걸쳐 1,400여 명이 선교대학을 수료했다. 그중 견습·전문인선교사 자격을 받은 수료자가 234명이었고, 그중 약 87명이 헌신하여 선교지로 갔다. 위의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5년 현재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견습·전문인선교사의 숫자가 38명이다.

다음으로 명성기독병원의 후원교회인 명성교회 병원사역을 알아보는 것은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관계가 있기에 여기서 잠시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명성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병원사역을 시작하였다. 1980년 7월 6일 개척된 명성교회 초기는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시기이자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가 시작된 초창기 시기였다. 더구나 이제 막 자생력을 갖추던 한국교회가 의료선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명성교회는 의료선교사역<sup>80)</sup>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2개의 중소형병원사역

79) 명성교회 해외선교부 자료 제공 (2015.12.1.일자). 위의 데이터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중 몇 학기는 데이터 자료가 정확치 않아 도표에서 생략 됨.

80) Merrill Ewert, *의료선교를 위한 새로운 전략: 의료선교의 과제와 전망 (A New Agenda for Medical Missions)*, 오상백, 변창욱 역 (서울: 예본출판사, 1999), 39. 여기에서 한국의료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국의료선교의 의의로서는 호레이스 알렌(Horace Allen)선교사가 왕의 조카의 현지 주치의의 한방치료가 실패한 후 알렌이 상처를 치료하면서 한국정부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호레이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4년에 선교사

과 2개의 대형병원사역을 국내외에서 감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대형병원인 안동성소병원, 영양병원, 청송병원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특히 총회 도서의료선교회를 통해 김삼환 담임목사가 구원호사역을 개인적으로 하였는데 이는 명성교회 의료선교에 간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명성교회 내 성도 모임 중 의료선교인 중심의 무료의료봉사 사역이 직간접적으로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자원적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역들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명성기독병원의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던 위의 사역들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1989년 12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에서 운영하던 구원호 사역을 위해 의료선교사인 성강자 전도사(구원호에서는 간호사이면서, 복음의 전파사역자)를 명성교회당에서 파송식을 하면서 시작되었다.<sup>81)</sup> 둘째는 안동 성소병원<sup>82)</sup>이 1909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파송 받아 온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병원이다. 이 병원은 계속 잘 운영되어 오다가, 196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가 선교사들에게서 운영권을 이양 받아 직접 경영하면서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1994년도에는 부실경영으로 인해 108억여 원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결국 명성교회가 이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

로서 한국에 들어오도록 허락받는데 공헌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국법으로 한국시민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는 선교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81) 명성교회 30년사 편찬위원회, *주님의 옷자락 잡고: 글로 읽는 명성교회 30년* (서울: 명성교회, 2010), 125, 163, 245. 구원호 사역의 주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도서의료선교위원회에서 하였고, 주 사역은 의료 활동(무료진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1990년 5월 4일 구원호 의료선교센터 기공식이 신안군 팔금면에서 있었고, 1995년 5월 18일 35톤급으로 구원호를 새롭게 진수하여, 서남 해안의 소외된 섬 지방을 돌며 의료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82) 명성교회, *2015년 말 정책당회자료집* (서울: 명성교회 2015), 501-503. 사회부보고서 참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안동성소병원에 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재단법인 안동성소병원은 1909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세운 경북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병원이었으나 2005년 신관증축에 이어 2011년 지상 10층 총 4천1백 평의 제2신관을 증축하여 총 800여 병상의 중대형병원으로 발전했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명성교회, 2012년 교회생활, 253와 주님의 옷자락 2권 7년을 하루같이, 2010. 책 229 참고) 그리고 2015년 현재 성소병원은 2015년 이후 신관을 지은 모든 건물의 평수가, 대지 8,257평(27,295m<sup>2</sup>), 건물 10,910평(총 36,066 m<sup>2</sup>)이며, 직원 635명(의사 57, 간호직 281, 의료기사 110, 행정, 일용직 187명이며, 청소 24, 경비 12, 어린이집 8명 포함 총 679명이 일한다. 종합병원으로 23개의 진료과목이 있으며, 병상수로는 169병실, 743병상(일반병동 503 베드, 정신병동 24베드)이 있다.

인수할 당시 어려웠던 성소병원은 명성교회의 경영혁신과 지원을 통해 정상화되었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병원으로 거듭났다. 또한, 2005년 신관을 증축하여 대형병원의 면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흑자 경영에 접어들었을 정도의 병원선교사역의 경험을 갖고 있다. 셋째로, 명성교회 해외 선교부가 지역사회의 선교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영양병원<sup>83)</sup>과 청송병원<sup>84)</sup>사역이다. 일반적으로 시골 보건소를 인수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의식을 갖지 않고는 힘든 경우이어서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이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영양병원을 거의 20년째 잘 운영하면서 의료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 두 병원사역은 김삼환 담임목사의 고향과 근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명성교회 성도들의 의료사역에 대한 참여이다. 명성교회 30년사 ‘주님의 옷자락’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기가 힘들었지만, 그것이 명성교회 의료인들의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다. 명성교회 병원선교위원회 주관으로 1989년 10월 22일 주일에는 거여동 일대의 주민들을 위한 무료의료봉사를 가졌다고 서술되어 있다.<sup>85)</sup>

명성교회 해외선교부에서 명성기독병원 건축에 관한 초안을 잡았다. 그러나 명성기독병원이 설계되고 건축될 때까지는 누가 어떻게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것은 김삼환 목사의 목회관을 통해 알 수 있다. 명성교회는 1980년 7월 6일 세워진 이후로<sup>86)</sup>, 36년째 실로 많은 복음에 관련된 선교를 국내외에서 감당하고

83) 명성교회, *2015년 말 정책당회자료집*, 사회부보고서 참고. 명성교회 사회부의 병원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북 산간 오지지역으로 병원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역 주민의 노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1996년 3월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폐업위기에 놓이자, 위탁을 청원해옴으로서 병원을 경영하다가 인수하게 되었다. 2015년 현재, 영양병원은 대지 791평(2,618m<sup>2</sup>), 건물 328평(1,087.8m<sup>2</sup>)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50병상으로 리모델링하여 장례식장까지 운영하고 있다.

84) 명성교회, *2015년 말 정책당회자료집*, 503. 부연하여 설명하면, 2011년 9월21일 위, 수탁 운영계약을 체결, 2012년 3월 7일 수탁업무를 개시하여 보건사업부문은 제외한 진료부분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한 ‘청송성소병원’으로 개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모든 군민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시로 나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지역 의료원에서도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병원은 안동성소병원과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85) 명성교회 30년사 편찬위원회, *주님의 옷자락* 참고, 135.

86) 명성교회, *2015년 말 정책당회자료*, (명성교회, 2015), 9, 15. 2015년 8월 현재 명성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는 63국가에 293가정 534명인데, 명성교회의 또 다른 선교사역으로 여주의

있다. 명성교회의 선교는 김삼환 목사의 목회 철학이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추진되었다. 명성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김삼환 목사의 첫 설교의 제목이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교회처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선교적 목회를 지향하고자 했다는 것이다.<sup>87)</sup> 그의 선교관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는 선교지를 선정할 때 남이 하지 않는 곳을 주로 선정한다. 일례로, 2009년 초 영국 BBC방송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키스탄이 이란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낙인찍혀 많은 국가로부터 비호감 국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된 후, 김삼환 목사는 오히려 파키스탄에 선교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파키스탄의 계속 늘어나는 인구는 파키스탄 학원선교의 합당한 때를 맞았다고 강조하였다.<sup>88)</sup> 또한, 중요한 선교 프로젝트는 김삼환 목사가 직접 주관하면서 선교지를 직접 돌아보고 선교사역의 방향성을 결정하였다.

여러 가지 선교현장의 특성상, 큰 프로젝트 사역은 장기 선교사의 뜻하지 않은 사역과 비자 등으로 인한 장애요소가 온다. 명성교회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서 오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에서부터 건립, 운영하기까지 현지에서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결정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명성기독병원 사역의 특징이 있다.

## 2. 명성기독 병원 현황

앞에서는 명성기독병원이 생기기 전에 명성교회를 통하여 계획이 현실이 된 해외선교부와 김삼환 목사의 비전을 알아봤다면, 여기서는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현황을 알아보고, 현장의 비전과 사역자들의 현황과 사역을 알아보고자 한다.

---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 사역과, 필리핀 한국아카데미 선교사 자녀학교, 캄보디아와 파키스탄 교육선교 등을 감당하고 있다.

87) 명성교회 30년사 편찬위원회, *주님의 옷자락 잡고*, 42.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김삼환 목사는 1980년 7월6일 명일동 홍우상가 34평(당시의 500번 종점자리 부근)에서 성전과 사택으로 시작하였고, 목회 첫 설교는 “안디옥교회처럼”(행11:19-30)의 제하로 설교하면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초대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역설하고 있다.

88) 명성교회 30년사 편찬위원회, *주님의 옷자락 잡고*, 172, 204-207.

선교사	신분	사역기간	세부사역분야
김태경 선교사	목회자	2004.5 - 2005.12	원목, 교회개척
이양재 선교사	목회자	2006.1 - 2008.11	원목, 교회개척
이규현 선교사	목회자	2007.12 - 2013.12	원목, 한인교회
송의광 선교사	목회자	2010.8 - 현재	원목, MMC, YDBB
김윤기 선교사	목회자	2015.1 - 현재	한인교회명목회파송
강원희 선교사	의료인	(1차) 2004. - 2009. (2차) 2015. - 현재	원장
김철수 선교사	의료인	2010. 9 - 현재	원장
문홍량 선교사	의료행정	(1차) 2006.6-2008.12, (2차) 2012.8 - 현재	부원장, 행정
이재열 선교사	행정(재정)	2010. 7 - 현재	재정
임석원 선교사	우물	2011. 1 - 현재	우물
이상구 선교사	정비	2013.10 - 현재	건축, 정비

<표 5> 명성기독병원 장단기 선교사 파송 현황

명성기독병원의 장단기 선교사는 명성교회에서 파송되었는데, 200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선교사 파송현황을 조사하였다. 최근 2차로 파송 받은 강원희 선교사는 नेपाल에서 의료사역자로 사역하다가 초대 원장으로 초청되어 사역하였고, 2015년 다시 현지 병원에 합류하여 사역하고 있다. 이전에 사역했던 전임 선교사인 김태경, 이양재, 이규현은 목회자 선교사인데, 이들은 지금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해외선교부의 담당 교역자로 사역한 경험이 있거나 명성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이 한 사역의 성향은 초기 개척자의 사역이었다. 그중 김태경, 이양재 선교사의 사역은 불모지에서 개척한 경우였다. 사역자 간 서로를 이해하며, 새롭게 길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감안할 때, 선교현장의 어려운 환경은 곧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문제점을 초래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현재는 김철수 의료전문인 선교사와 문홍량 사역자는 명성교회 시무장로이면서 전문인 선교사로 현지로 파송 받아 사역하고 있다. 2016년 8월 현재 이기동 집사<sup>89)</sup>가 현지에 합류하여 사역하고 있다.

89) 이기동 집사는 공군 중장 출신으로 전역 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지냈으며, 현지 명성기독병원에서 대외협력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MCM	4명	5명	3명	4명	7명	16명	자료없음	16명	15명

<표 6> 명성 기독교 병원 견습 선교사 파송현황<sup>90)</sup>

명성기독교병원 견습선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 4명에서 2015년에는 15명으로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명성기독교병원의 견습선교사는 우물선교팀의 견습선교사와 함께 명성기독교병원에서 주로 행정보조 등으로 사역한다. 모든 경비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기에 헌신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문인 예비 종사자 격인 대학졸업생과 대학원생들이 헌신함으로써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아래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 류	원목	의사	간호사	약사	기타	가족봉사자	합 계
Korean	2	4	5	1	13	14	41
Ethiopia	2	47	211	54	262	0	576
Foreigner		4	2	4	0	9	12
Total	4	55	219	58	275	23	629

<표 7 > 명성기독교병원 사역자 (직원) 현황

2015년 7월 현재 명성기독교병원 사역자 현황을 보면, 한인 사역자는 에티오피아인 사역자의 약 7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 에티오피아인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7 > 참조<sup>91)</sup>

내과	소아과	안과	진단검사실
마치과	소아외과	영상진단의학과	통증의학과
병리학	신경외과	외과	혈관외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외상외과	
성형외과	신장내과	정형외과	

<표 8> 명성기독교병원 진료과목 현황

90) 자료제공은 명성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2016년 1월 현황임.

91) MCM 운영위원회, *MCM Love Ethiopia Love Africa 화보집* (Seoul: MCM & Myungsung Medical College, 2013), 16.

명성기독병원의 진료과목을 보면, 어느 선교지의 조금만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에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형외과<sup>92)</sup>, 신경외과, 영상진단의학과 통증의학과 혈관외과 등의 진료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지인들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의료 시설을 갖추겠다는 명성교회의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9> 참조<sup>93)</sup>

년도,월	명성기독병원(MCM) 역사
1985.4	에티오피아난민 위한 교회학교 금식(초등부:85,580원,중등부:41,920원)성금전달
1993.8	에티오피아 수상의 병원건축 요청, (12월) 구호품 컨테이너 3대 선적
1994.5	이은용선교사가족파송, (7월) 조창현선교사 파송
1996.1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에티오피아 병원 설립 결정
1997.1	무상부지 사용계약 현지 정부와 체결(90,000m <sup>2</sup> ), MCM 개원준비위원회 조직
2001.5	MCM 기공식
2002.4	강원회 선교사를 네팔에서 에티오피아로 파송
2004.2	개원준비위원장 박노숙장로로 변경, (5월)김태경선교사 파송
.11	건물 준공 및 MCM 개원( 초대 병원장: 강원회)
2005.1.1	1차 공사 완료
2006.3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협력기관 체결
2007.9	물리치료실, 신생아 중환자실 개설
2008.4	새 숙소동 착공
2009.5	2대 병원장 취임(Einer Eriksen, Norway)
2010.3	명성교회 30주년 기념교회 및 간호대학 신축 기공식
.9	3대 병원장 취임(김철수 원장)
2010.12	유럽페이싱 아프리카팀 총200명 진료 및 수술, BBC 방송 다큐제작(2009.3~ )
2011.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외 방문
.3	아디스아바바 의과대학 착공
.7	이명박 대통령 내외 방문
.11	명성교회 30주년 기념교회 'Good News Church' 헌당예배
2012.6	명성의과대학 MMC 인가 획득 (에티오피아 고등교육청)
2012.8	명성의과대학 개교기념예배
2013.3	새병동 신축공사 시작(신 사무동 신축공사 완료)
2013.11	2013 루이즈빌 세계의료선교대회에 참가
2014.12	김윤기선교사 파송

<표 9> 명성기독병원 역사

92) 명성기독병원의 성형외과는 일반적으로 성형하는 것의 관점이 아닌, 현지 풍토병의 일종으로 구순개열이 되어 가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복원해 주는 사역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얼굴기형환자 후원회에서는 해외 제 16번째 무료수술봉사로 명성기독병원에서 25명의 구순구개열환자에 대한 무료수술과 치과진료를 2008년7월24일부터 8월3일까지 16명의 의료봉사 팀이 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인터넷에서 발췌, 2017년 4월 17일자,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9AR4VHIA/1432010283@@ADD\_FILE1newsletter.pdf

93) 인터넷 <http://news.chosun.com/>,2004.6.11일자 기사, 2017.1.28.일 발췌. 2004년 기준으로 명성기독병원 외과 수술은 한 해 150명 이상이 무료로 수술 받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이 병원이 세워졌는가? 여기서 초창기 명성기독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명성기독병원에 대한 비전을 품은 몇 년 후인 2003년 4월에 명성기독병원 설립에 대한 세부 계획이 초안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안에 따르면 명성기독병원은 다음과 같은 운영목표를 가지게 된다.

첫째,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을 전심으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쓴다.

둘째, 환자 중심의 쾌적함을 늘 추구하고 에티오피아 전 국민을 널리 포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이동진료를 펼친다.

셋째,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교회 조직을 활용하여 복음전파 및 의료선교를 지원하며 교회 성장과 개척에 이바지한다.

넷째, 에티오피아 국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진단과 재해 질환의 진단, 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다섯째, 선진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꾸준한 경영개선을 기하고 업무 자동화 수준을 향상한다.<sup>94)</sup>

다음으로 원목실<sup>95)</sup> 운영 현황을 알아보면, 앞의 직원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 11월 현재 병원 원목실은 두 명의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실제로 원목실 사역에 직접 관계하고 있지 않지만, 현지 한인교회를 담당하면서 의료사역을 하고 있는 김윤기 선교사가 명성기독병원 내에 있는 한국인 사역자들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특별히 3월과 9월에 있는 특별새벽기도는 시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영상으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현지의 새벽시간에 명성교회 특별새벽기도로 함께 은혜받고 있다.

특히 선교현장에서의 병원 원목실 사역은 병원 안의 사역과 병원 밖의 사역을

94) 명성교회 세계발전본부(해외선교부), *에티오피아 명성 메디칼센터 건립추진계획(안)*, (명성교회, 2003), 5.

95) 한국원목협회, *한국원목협회 50년사* (서울: 코람데오, 2013), 44-45.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국내의 원목협회는 2012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일반적인 한국 원목사역의 처음은 세브란스병원이 1912년 공식적인 원목제도를 만들어 사역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원목실은 환자목회와 병원선교사역의 모델을 제시하여, 예배실, 기도실을 구비하고 다양한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상담 및 심방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원목 사역이 환우들의 영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이 치료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알고, 수술 대기실에서 원목실 목회자들이 수술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영적 돌봄을 통해 병원사역자들의 위상을 더 높이는 데 그 역할의 의미가 있다.

동시에 해야 한다. 다음으로 병원 밖의 선교사역현황을 알아보면, 명성기독병원 내에 있는 굿 뉴스 명성교회(Good News Church)와 원목실을 통해 함께 하는 사역이 몇 가지 있다. 여기서는 사역연구의 범위에 관련되어 개관 정도로만 알아보겠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우물사역은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물을 직접 파주고 있다. 이는 명성기독병원의 원목실과 협력한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현지인들의 질병이 식수에서 온다고 보고,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우물을 파는 기계를 명성교회에서 직접 주문 제작하여 현장에 투입하고 이 일을 돕기 위해 견습선교사 또한 파송하고 있다.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우물선교	3명	2명	7명	5명	2명	2명	자료없음	2명	2명

<표 10 > 우물선교 견습 선교사 현황

<표 10>을 보면, 2007-2010년 사이에 제일 많은 우물선교사역자가 현지에 파송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명성기독병원의 부흥을 위해 교회 개척사역과 함께 협력사역으로 함께 지원한 사역이다.

다음의 교회 밖의 협력사역으로는 명성기독병원 무료 이동진료 사역이다 <표 11> 참고.<sup>96)</sup> 병원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명성기독병원이 주로 하는 사역 중 하나는 오지나 병원 혜택을 받기 힘든 곳에 거주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병원의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역이다. 이 사역은 주로 한국에서 단기 의료선교팀을 파견해 그런 지역에 나가기도 하지만, 현지에 있는 의료선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지역을 돌며 사역을 지원한다. 그 밖에 오지 무료진료사역을 명성기독병원과 교회와 연합하여 계속적으로 오지의 의료선교사역도 개선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다.

96) 명성교회 MCM 운영위원회, *MMC, Love Ethiopia, Love Africa* 화보집, 22.

년도 (Year)	이 동 진 료 (Mobile Clinic Service Provided for in Particular Locations)	무료 수술환자 (Patient Operated on Free of charge)
2004	호산나(아디스아바바 남쪽 500Km) 등 연간 2회 Two visits to Hosanna	
2005	굼즈(아디스 아바바 북서쪽 600Km) 등 연간 12회 12 visits to Gumuz	50
2006	긴찌, 갈레사 콥투(아디스아바바 서쪽 120Km) 등 연간 12회 12 visits to Ginchi	45
2007	하그레마리암(아디스아바바 남쪽 500Km) 등 연간 12회 12 visits to Hagremariam	45
2008	딜라(아디스아바바 남쪽 400Km) 등 연간 10회 10 visits to Ginchi	40
2009	긴찌(아디스아바바 서쪽 100Km) 등 연간 8회 8 visits to Ginchi	50
2010	긴찌(아디스아바바 서쪽 100Km) 등 연간 8회 8 visits to Ginchi	50
2011	긴찌(아디스아바바 100Km) 등 연간 8회 8 visits to Ginchi	50
2012	소도(아디스아바바 남서쪽 380Km) 등 연간 6회 at Sodo, to vists 6 times a year 가파라(아디스아바바 남서쪽 250Km) 등 연간 6회 6 visits to Gafala	55
2013	소도(아디스아바바 남서쪽) 등 연간 6회 가파라(아디스아바바 남서쪽 250Km) 등 연간 6회 6 visits to Sodo & Gafala	60
2014	긴찌, 갈레사 콥투 (아디스아바바 서쪽 120Km) 등 연간 10회 10 visits to Ginchi	80

<표 11 > 명성기독병원 무료 이동진료 사역 현황

다음으로 명성기독병원의 밖의 사역 중 명성의과대학<sup>97)</sup>이 있다. 에티오피아의 명성의과대학은 명성기독병원 개원 8주년을 맞아 2012년 9월 23명의 신입생으로 개교하였다. 세계적인 교수진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에티오피아 최고의 교육을 지원할 것과 명성기독병원에서 실습이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학생들에게 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 명성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술과 함께 인술을 펼치며 에티오피아 땅과 전 아프리카에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교육목

97) 명성교회 MCM 운영위원회, *MMC, Love Ethiopia, Love Africa 화보집*, 40.

표를 가지고 있다. 명성의과대학의 비전은 의술 및 의학 연구를 하는 에티오피아 최고의 의과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며, 학교의 미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래의 의료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의학 및 과학의 혁신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목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인격적 의료 전문인 리더를 훈련시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명성기독병원의 현황을 알아보면서, 명성교회는 현장과 직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는 김삼환 목사의 목회철학이 명성기독병원의 비전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비전에 입각하여 명성기독병원은 사역하고 있으며, 특히 밖의 사역으로 우물선교와 시골 오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무료 이동진료 등을 통하여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통하여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의 사역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구조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음에 알아보자.

## 제 2 절 명성기독병원의 의사소통 사례 분석 및 평가

명성기독병원에서의 의사소통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명성기독병원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는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특이한 구조이다. 또한, 이곳은 팀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이기에, 여기서는 선교사들의 의사소통과 현지 동역자간 의사소통 또한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간의 의사소통의 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 1. 명성기독병원 의사소통 구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15년 7월 현재의 명성기독병원 사역자 현황을 보면, 전체 629명이 명성기독병원에 종사하고 있다. 그중 선교사는 41명(원목 2, 의사 4, 간호사 5, 약사 1, 기타행정 13, 가족봉사자 14명), 에티오피아 현지 사역자는 576명(원목 2, 의사 47, 간호사 211, 약사 54, 기타 262)이다. 또한 3국의 외국인 사역자가 12명(의사 4, 간호사 2, 약사 4, 가족봉사자 14)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현지인과 한국인 사역자(단기·견습 포함)의 비율은 100명당 7명 정도로 첨예하게 다르다. 이러한 현지 사역

자 위주의 명성기독병원 직원현황을 보면, 한국 선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의사소통의 구조를 알아보고 그 대책을 세워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명성기독병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명성기독병원의 의사소통 구조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 간의 의사소통의 구조가 있다. 이는 한국문화와 현지문화를 겸하는 이중문화권에 속한 사역자들에게는 문화 간 의사소통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폴 히버트와 찰스 크래프트의 ‘수용자 중심적 관점’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한국선교사들은 매일 개인적으로는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또한 행정과 원목으로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전문인 선교사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특수하게 현지인들과 만나게 된다. 의료행위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들과 만나며 육체적 질병을 통해 만나기도 한다. 그리고 의사로서 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병원 의사에게 갈 때, 모든 사람은 위축되게 마련이지만, 좋은 의사와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경우, 어려운 병을 가진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 있다. 가벼운 병이지만 의사가 명확한 진료 상담을 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원목실의 구조는 한 명의 한국선교사가 현지 목회자 동역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구조는 수용자 중심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특이하게도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수용자 중심적이지만 쌍방향의 의사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이유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보다도 한국선교사와 현지 동역자의 관계를 통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함께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병원 내에서 한국선교사 간, 현지 동역자 간, 그리고 한국선교사와 현지 동역자가 연합한 의사소통하는 구조가 있다. 이는 ‘팀 사역의 관계’로 만나는 그들의 유형을 문화 간 의사소통 중 팀 사역위주로 만나는 것인데, 이는 수용자 중심적 구조가 아닌, 협동원리의 구조와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과 평가를 하게 된다. 이

분석과 평가의 기초자료는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들과의 인터뷰와 사전 질문서를 통해 받은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다.

## 2. 인터뷰를 통한 명성기독병원 의사소통 분석 및 평가

### 가. 인터뷰를 통한 명성기독병원 의사소통 분석

이 자료의 질문은 효과적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에 집중됐지만, 의도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선교사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말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은 ‘문화’와 ‘소통’에 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 문항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현지의 사역자들에게 너무 상세하게 민감한 갈등의 문제를 유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들의 삶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과 어려움에 관한 내용을 주로 질문하게 된다.

이 연구의 첫째 관심은 당연히 선교사이다. 왜냐하면 타문화권에서 살면서 현지 인들과 동화하기 위해 선교사는 매일 노력하지만 실제로 현지의 입장에서는 항상 외지인이요, 타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선교사역을 떠날 때 선교 훈련을 받았지만, 문화적 충격(Culture Shock)에 관한 실제적 훈련은 많이 받지 못하고 떠났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선교사는 자신이 외지인이나 타국인으로 부르는 현지 동역자에게 이질감이나 괴리감 없이 진정한 친구로 다가설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된다면, 그는 최고의 문화적 적응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심사는 현지 동역자 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사역하는 선교사가 현지의 문화를 그만큼 더 알고 사역할 때 서로 의사소통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후원교회에도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후원교회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사가 현지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갖는 부류는 당연 선교사 본인이라고 생각한다.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인터뷰의 목적이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신뢰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수용성에 관한 연구인데, 선교지와 후원교회를 위해 일하는 선교사는 두 문화권 속에서 전달자와 명령자의 관계성 속에서 사역하게 된다. 이는 ‘전달과 수용’이라는 서로의 입장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말로 ‘피수용자’와 ‘수용자’의 입장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명령자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용자의 입장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받는 선교사는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메시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삶의 현장(Sitz im Leben)에서 주어진 여건에 맞게 현장화 해야 하는 사역을 경험하게 되며, 그 현장에 맞는 전략을 세워 상호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연구 방법은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두 쪽을 양 측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선교 사역자를 포함하는데, 실례로, 선교사와 선교사 간,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 간 상호 소통의 입장과 수용자의 입장으로 “효과적 전달과 수용”의 의미에 있어서 실제 명령자가 나머지 모든 사역자와의 메시지 소통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그들을 함께 인터뷰하게 된다. 인터뷰 시간은 60분에서 100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상황에 맞게 녹취와 면담을 병행한 후, 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명성기독병원의 효과적 사역전략을 찾는 방법으로 전개하게 될 것이다.

연구 설계: 이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곧 명성기독병원이 세울 때 가졌던 비전부터 현재까지 현지의 선교사들(현지 동역자들 포함)과 후원교회와의 의사소통 경험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이다. 나는 여기서 현상학 연구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이 연구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경험의 의미나 본질을 밝히는 것으로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사태 자체로 되돌아가서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의 이념이나 수용의 정도 등을 그대로 의사소통 경험을 전제 없이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술해 사태를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현지 선교사들 간의 소통을 분석하고 전달의 의미에서 병원선교사역의 비전과 미션대로 움직이는지를 총체적으로 접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의미를 찾아 효과적 수용과 전달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한국 선교와 현지 동역자, 두 부류를 선정했다. 그 한 부류는 선교사요, 다음으로 현지 동역자를 선정하여 인터뷰하게 된다.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본 연구자는 과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13년간 근무하면서 이중 문화권에 대해 고민을 자주 했다. 그리고 장신대 선교학 석사과정(Th. M)을 이수하면서 이중문화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달과 수용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고민했다. 현장의 소리를 담기에 선교지와 후원교회, 선교사와 현지 간의 서로 간에 다른 이중문화권에서의 삶과 사역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해 효과적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을 해 왔기에 이 논문은 선교지 현장에 관한 후원교회의 의사소통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윤리적 고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내용을 인터뷰 사전 설문지에 적었으며, 인터뷰 초반에 약속하였다. 그리고 누구라도 비밀이 보장되기 위해서 특수 기호로 컴퓨터에 보관하게 될 것이며, 개인 정보는 보호를 위해 사적인 자료를 모두 제거하였다. 그리고 면담 전에 연구 목적과 면담내용이 녹음되고 필사되어 연구에 활용되게 된다.

자료 수집은 “효과적 전달”의 의미로 본 ‘소통’을 타문화권에서 연구한 내용의 논문을 찾아봤지만, 쉽게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반적 효과적 전달에 관한 논문은 ‘임상실무에서 간호사가 겪은 의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이란 논문을 국립순천대 간호학과 박광옥이 연구하여 간호행적학회지에 낸 것을 바탕으로 하였고, 두 번째로, 송미경 외 3인이 연구한 타문화권의 소통을 다루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을 토대로 사용하였다.<sup>98)</sup>

다음은 질문 내용의 주제들인데,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에서 문화적 혼란을 겪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인과의 협력 정도에 관한 질문과 상호 문화에 대해서 입장, 현지에서 사역하면서 기대되는 것과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를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사역자간의 소통에 관해서는 사역지와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질문으로는 ‘의사소통 중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 있습니까?’,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도움을 받은 지지체계나 대상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하였나요?’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후원교회의 사역자들에 관해 그들이 얼마나 현장과 소통하

98) 송미경 외,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2 (2008) 497-517.

며, 현장의 문화에 관심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사항들을 토대로 면담 내용을 정리하고, 특히 사항 등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의 장소는 1:1의 면담과 녹음이 가능한 장소로 택했으며, 인터뷰 시간은 약 40분에서 60분으로 하였고,, 참여자는 1인 1회로 한정하여 그들의 사역의 경험을 위주로 공감적 반응과 관심을 갖고 경청하여 녹취하였다.

자료 분석(인터뷰): 면담시작 시 참여자에게 동의를 재차 구하고 녹음하며, 녹음된 자료는 한글로도 입력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는 입력된 자료와 녹음 내용을 대조해가면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것이다. 자료는 콜라지(Colaizzi)의 방법<sup>99)</sup>으로 현상학적 분석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기록하며 분석에 참고하였고 참여자의 의사소통의 경험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인터뷰된 내용 중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을 찾아 그것을 기술하고 문제를 제시하며, 추출된 의미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간추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기술하였으며, 명확한 의미를 찾아 주제를 분류하고, 분류된 주제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범주화 할 것이다.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콜라지(Colaizzi)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면서, 책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과 결과물의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의 사역이 한국의 명성교회에서 시작된 모든 사역의 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취하며, 참된 의미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타국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선

---

99) 유기준, 최영희, “현장실습에 대한 가치 인식과 만족도가 취업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관련 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5:2 (2013), 34. 그는 자료 분석방법을 다음과 같이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Giorgi, Spiegelberg, Van Kaam, Van Manen, Benner, Paterson). 이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속정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인 Colaizzi의 분석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분석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대상자의 의미 있는 진술에서 구성된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에서 주제(theme) 및 주제모음(theme cluster)을 확인하여 범주화(category)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 이론 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콜라지(Colaizzi) 분석방법으로는 6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료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진술을 읽고 둘째, 의미 있는 진술문을 도출하고, 세 번째, 일반적 진술을 과학적인 언어로 만들기 위해 일반적 형태로 재 진술 넷째, 의미 구성도출하고, 다섯 번째는 범주를 조직하며, 주제로 묶고, 마지막으로는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인 기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교사가 현지인 동역자들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과 갈등, 소통 등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면서 효과적 전달, 즉 수용의 정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들을 정리해 전략으로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인 선교사들과의 인터뷰는 2015년 10월 27일부터 4박 5일간 제주도 명성 수양관, 로템나무 하우스에서 있었던, ‘2015년 유럽 아프리카 명성 선교사 대회’ 참석차 입국한 에티오피아 선교사들을 상대로 필자가 선교부 담당자로 참석하여 인터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뷰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 1. 인터뷰 녹취일시 및 장소(익명)

순 서	인터뷰자(가칭)	장 소	일 시	인터뷰 시간
1	사역자 A1	제주명성아카데미하우스	2015.11.1 AM9:10-45	30 분
2	사역자 A1, B1	원주 명성수양관	2015.11.2.PM10:30-12:30	120분
3	선교사 A2	Ediya Coffee shop	2015.11.4.PM21:40-22:40	60 분
4	사역자 B2	명성교회 해외선교부	2015.11.17.AM9:30-10:20	50 분
5	사역자 B3	현지에서 녹음으로	2016.12. 10일	4 0분

#### <표 12> 선교사 인터뷰 현황

인터뷰 사역자에 대한 인터뷰의 자료로 녹취 일시와 인터뷰자의 명단이 있지만, 인터뷰 연구 규정상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순서	이름(가칭)	일 시	소요시간	비고
1	Ethiopian A	2015.12.2.PM10:30-12:30	45 분	현지 한국사역자의 도움으로 녹음
2	Ethiopian B	2015.12.2.PM21:40-22:40	60 분	
3	Ethiopian C	2015.12.17.AM9:30-10:20	50 분	

#### <표 13> 현지 동역자 인터뷰 현황

### 사역자 인터뷰 녹취록 결과 주요 내용 정리

- \* 긍정적, 열린 마음과 적극성(관계회복의 문제점을 제시, 적응성, 이해심) 요구
- \* 사역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협동심)
- \* 현장 적응에 언어적 문제가 중요함을 제시.(언어와 문화의 적응)
- \* 현지와 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공유, 현지사역자 간 필요.(현지문화와의 소통)
- \* 현지 문화를 배워야 친구를 잘 사귄 수 있다는 것을 인식.
- \* 현지 다 민족의 공통언어를 배워야함과 적응문제 제시(현장화, 인간관계)
- \* 현지인들을 향한 복음 안에서 협력과 상호 소통의 필요성제시(수용성, 적응력)
- \* 현지들과 문화 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제시.
- \* 과거 공산화, 이슬람인, 정교회의 문화와 관계회복문제를 제시.
- \* 현지 동역자들은 한국선교사와 더 좋은 관계를 요구함. (팀 사역 어려움I)
- \* 현지 동역자 간(에티오피아인들 간)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역자의 자세 요구.  
(팀 사역의 어려움 II-다 부족 국가로 언어와 문화)
- \* 한국선교사가 현지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 할여하기를 바람.
- \* 한국선교사가 현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해주길 현지 동역자들이 바람.
- \* 사역자 간 상호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 현지 동역자들은 한국교회의 장점을 배우길 원함(한국교회 방문프로그램 운영).
- \* 현지 동역자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전통문화를 한국선교사들이 배우길 원함.
- \* 팀 사역에서 사역자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인내심, 설득력 필요함.
- \* 현지 동역자 간에, 많은 부족이 있어서 발음이 달라서 못 알아들을 때도 많아  
인내심을 요함, 같은 부족 사람이어도 다시 물어봐서 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후원본부에 선교적 경험이 있는 중간관리자가 있음으로 더 나은 정책을 해 나  
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 선교사들은 현지 동역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기를 원하고, 인내하고 이  
해해주길 원함.
- \* 명성기독병원 사역자들은 명성기독병원이 에티오피아 정부와 계속동역을 잘 해  
나 갈 것을 요구.
- \* 현지 동역자들에게 더 높은 주인의식(비전의식)의 필요성을 제시.
- \* 현지 동역자는 한국봉사자들과 진정한 형제의 관계로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  
함.

### 나. 인터뷰를 통한 명성기독병원 의사소통 평가

‘비전성취’를 통한 소통 평가: 명성기독병원병원이 태동하기까지 어떻게 비전을 소통하였는가를 도표를 통하여 알아보면, 최근 2015년 7월 명성기독병원의 비전을 통해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의사소통의 정도를 알 수 있다.

	2003년 4월 계획(안) (시작 전)	2015년 7월 실행 (10주년)
운영 목표	첫째,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쓴다. 둘째, 환자 중심의 쾌적함을 늘 추구하고 에티오피아 전 국민을 널리 포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이동진료를 펼친다. 셋째,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교회 조직을 활용하여 복음전파 및 의료선교를 지원하며 교회 성장과 개척에 이바지한다. 넷째, 에티오피아 국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진단기 등과 재해 질환의 진단, 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다섯째, 선진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꾸준한 경영개선을 기하고 업무자동화 수준을 향상한다.	첫째, 아프리카 선교의 교두보 역할 및 중추적 역할, 둘째, 에티오피아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 발전, 셋째, 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의료와 교육의 중심적 역할 넷째, 믿음으로 무장된 의료인력의 양성 다섯째,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관리 및 추진으로 “온 세계의 다른 선교단체, 복음주의 교회, 국제 기구들과 연합하여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에티오피아의 국민을 위해, 의료진료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며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병상 수	1층: 63, 2층:63, 3층:24 (합:150 beds)이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2015년 이전 161 beds, 2015년 7월 67병상 추가 2인실(44),입원실 1인실 (13), 특실 등으로 신축했다. (합: 228 beds)
진료 과목	중환자실, 외과, 응급실, 외래, 건강검진실, 방사선, 수술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 산부인과, 소아과를 둔다는 계획안	2015년 7월 이전까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치과, 진단검사의학과,진단방사선과, 산부인과, 소아과,마치과2015년 7월 10주년 개관병동이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MRI <sup>100)</sup> , 건강 증진센터, 이비인후과, 물리치료과 등으로 확장함.

<표 15> 명성기독병원 첫 비전과 10년 뒤의 성취도 비교 분석

100) 명성교회 MCM 운영위원회, *MMC, Love Ethiopia, Love Africa 화보집*, 8. 명성기독병원은 최근 미국 존 홉킨스대학과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과 등이 있다 위의 도표를 보고 평가할 때, 명성교회 MCM 운영위원회, 2015년 7월 이후로 거의 모든 병동의 계획은 이루어졌으며, 더 아나가 소아과를 소아 청소년과로 분리하였고, 이비인후과와 MRI 기기 등을 추가하였으며, 특화 된 67병상은 (2015년 10주년 개관병동) 2인실22실(44병상), 1인실(13병상), 특실(4병상)으로 만들어 주변 국가의 환자 중 유럽으로 빼앗기는 환자들을 명성기독병원에서 치료하면서 특화된 병원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비전의 실행 평가:** 비전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명성기독병원 운영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비전을 성취하며, 지역사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 사역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선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은 정교회와의 관계로 앞으로의 선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김삼환 목사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세계교회협회(W.C.C)의 사역까지도 명성기독병원 사역의 장으로 연장하여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된다고 평가된다. 후원교회의 목회자로서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는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매년 선교지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들어오든지 하여 소통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비전의 실행을 위해 그는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하면,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한 부분들을 미안해하며 선교사들을 대한다. 그리고 늘 선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역을 명령하는 독백의 소통형식이 아니라, 직접 선교에 동참하는 삶의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하여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필자는 선교사일 때 경험하였다. 또한, 그는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아보아 사랑으로 돌보는 목회를 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의료선교사들은 지역사회에 의료선교로 봉사함으로 명성교회 모든 의료사역에 헌신한 의료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헌신할 수 있는 곳에서 봉사를 했고 개척초기부터 지금까지 선교의 비전이 녹아있는 특별새벽기도회와, 금요구역장 권찰 훈련을 통한 구역헌금은 선교와 구제비로 전액 사용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명성기독병원의 비전의 성취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역은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결실로는 어마어마한 선교적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기에 에티오피아에 명성기독병원의 사역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역자들의 ‘비전 이해도’ 평가:** 첫째로 현지 동역자들의 비전 이해도가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것은 명성기독병원이 세워지고 약 11년이 지난 지금 현지 동역자들이 이해하는 비전 이해도를 퍼센트로 내어보니, 약 15퍼센트 정도의 사역자만이 복음과 선교병원으로 이해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비전의 이해 정도가 낮은 이유는 현지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의 육적인 필요를 우선 채우려는 관점으로 인해 비전의 이해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로 선교사들의

비전 이해도인데, 일반적으로 선교사는 자신이 ‘헌신’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강한 성품을 가져야 선교현장에 적응할 수 있기에 선교사는 선교적 마인드가 중요하다. 명성기독병원의 사역자의 역할을 잘 이해하여야 하지만, 짧은 기간의 사역적응으로 인해, 비전이해도가 낮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평가된다.

**‘비전성취를 위한 건물의 현장화’를 위한 평가:** 명성교회가 처음에 명성기독병원 계획을 실현하고자 비전을 세울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나, 또한 명성기독병원의 병실을 하나하나 세워간 것은 중요한 사역의 결과로 평가된다. 더 세부적으로 명성기독병원의 건물의 소통에 관한 내용은 입원실 병상 150 (beds: 이후로 생략), 중환자실 16, 신생아실 28로 합 194로 설립하기로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처음 지을 때 더 확장하여 보유 병상 수는 194 중 분만실 7, 회복실 8, 응급실 14, 신생아실 7, 그리고 간호사실 내 병상 2X3(6)로 합 236으로 늘리기로 계획을 세웠다. 더 나아가 종합건강 검진실을 두어 지역 사회주민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검사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신뢰감을 회복한다는 전략이 초창기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병원 설립 초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병원 홍보의 일환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뇨병 교실, 산모 교실, 간질환 교실, 고혈압 등과 같은 주제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우는 보건 교실은 같은 병이 발병하기 전에 교육함을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와 현장의 이해도 분석 평가:** 한국선교사는 늘 현장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문제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역현장에서 한국선교사 현지 동역자와 관계할 때, 자신의 삶의 현장이나 한국적 습관이나 현지의 문화에 맞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 성과로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선교사가 말할 때는 문화의 준거의 틀을 가지고 ‘듣는 사람의 문화’로 전해야 함에 현지의 문화를 더 배워야 하는 현장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장의 선교사들은 선교현지의 다 부족인들과 사역함에 있어서 문화와 현장이 복잡하고 언어의 적응력에 있어서 이해도를 더 높게 현장에서는 의료선교사는 매일 현지들과 현지 사역자들(병원 안팎에서 만나는)과 환자로 만날 수 있기에 한국 선교사는 항상 현지들과 양방향소통에 열려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명성기독병원은 컴파운드 (Compound: 명성기독병원 단체 기숙사 명칭) 지역 내에서 살



고 있으며, 현지 문화와 동화되어야 하며, 더욱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현지 언어와 문화의 적응력 평가:** 한국사역자들이 현지 언어와 문화에 적응할 때 현지인들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려고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유로는 한국선교사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또한 후원교회와 소통해야 하기에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현지 문화에 적응하려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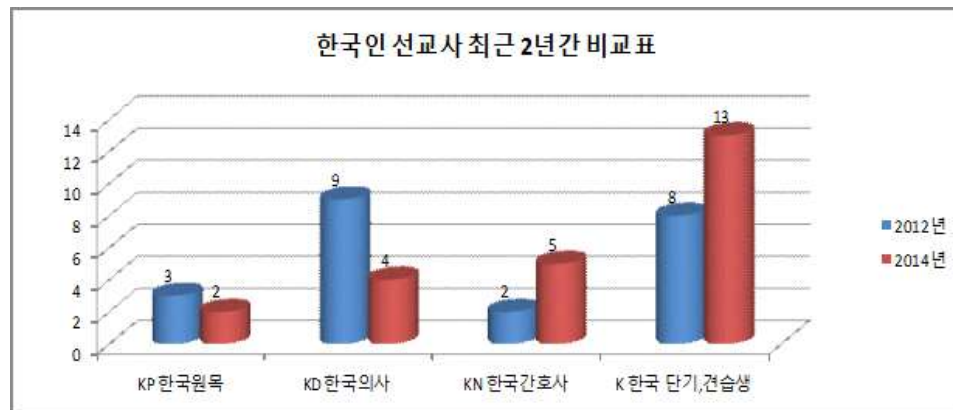
**한국선교사의 선교사명 의식 평가:** 현지 동역자들이 볼 때, 한국봉사자들은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문화 차이 때문인지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다. 물론 향수병으로 인해, 고국의 가족들과 인터넷으로 매일 연락할 수 있기에 이 시대는 한국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 그렇다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명성기독병원의 사역자로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각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병원 밖의 사명 의식에서는 한국봉사자들의 사명 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지 동역자들은 한국선교사들과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역자의 자세를 요구하였다. 이는 선교현장이 다 부족 국가로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달라 같은 에티오피아인들도 다른 부족원과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에, 명성기독병원의 한국선교사는 상호 이해와, 협력, 인내심을 갖고 임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분 류	원 목		의사		간호사		약사		기타		가족 봉사자		합 계	
년도비교	12	14	12	14	12	14	12	14	12	14	12	14	12	14
Korean	3	2	9	4	2	5	0	1	8	13	14	14	35	41
Ethopian	2	2	39	47	131	211	38	54	152	262	0	0	362	576
Foreigner	0		4	4	4	2	5	4	0	0	9	9	22	12
Total	5	4	52	55	137	219	43	58	160	275	23	23	420	629

<표 16> 명성기독병원 직원증감비교 분석<sup>101)</sup>

101) 명성교회 MCM 운영위원회, *MMC, Love Ethiopia, Love Africa* 화보집,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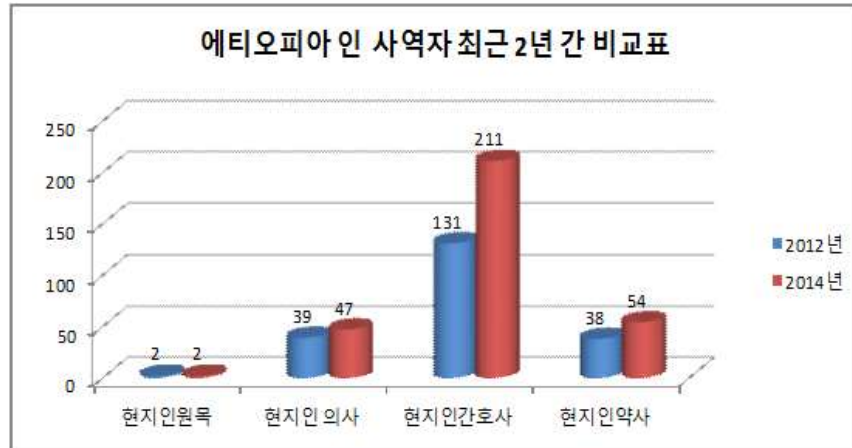
<표16, 17>을 보면, 최근의 전문인 선교사가 2012년과 2014년 데이터를 볼 때 현지 동역자의 사역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 의사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인 간호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간호사들을 훈련하기 위하여서 또한 한국 의사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국 간호사들이 현지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명성기독병원이 현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할 수 있다.



<표 17 > 최근 2년 간 선교사 증감비율 분석

다음으로 한국인 간호사와 단기 견습생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명성교회에서 매년 자비량으로 현지 병원행정과 병원 이외의 사역인 교회개척사역을 도우러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으로 명성기독병원 종사자중 전문인 선교사<sup>102)</sup>는 2012년과 2014년의 사역자 수를 볼 때 점차적으로 현지들의 사역자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고 한국인 의사 수는 줄어들고 있고 한국인 간호사는 조금 늘어난 반면에, 현지인 간호사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표18>을 보면, 현지 동역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설의 투자로 인한 병실의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선교사들의 비율이 현지사역자들에 비해 서서히 감소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102) 명성기독병원에는 3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특히 미국에서 파송 받아온 헌신된 한국인 사역자들도 있다. 여기서는 한국 명성교회(후원교회)와 현지 선교사의 사역의 연구범위로 한정하였기에, 3국에서 온 한국인 의료 전문선교사는 특별히 연구하지 않는 것을 밝혀둔다.



<표 18> 최근 2년간 현지 동역자 증감비율 분석

다음은 케인(H. Kane)이 제시한 선교의료의 단점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역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이는 명성기독병원이 과연 선교의료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얼마나 선교전략으로 잘 접근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즉 1)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 2) 중 상류층을 향하는 경향 3) 잘 훈련된 의료인 양성에서 실패 4) 선교 의료를 통해 회심한 환자나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계속교육 (Follow-up)의 실패 5) 교회의 협력과 지원이 저조함 등이 그것들이다.<sup>103)</sup>

필자는 여기서 케인이 제시한 여러 가지의 선교지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명성기독병원의 사역과 어떤 결과의 평가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103) J. Herbert Cane,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 315-316. 김민철, “선교의료의 상황화 적용에 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에서 재인용.

케인의 ‘대도시로 (상류층 만을) 집중 사역하는 현상’ 비교평가: 현대인은 도시로 집중되는 생활을 한다. 또한, 의료수준도 시골보다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도시의 병원에 적응되어 가고 있고, 그에 맞춰 병원을 찾고 있는 현실이다. 명성기독병원 또한 대도시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병원 내 사역만 아니라, 병원 밖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사역은 대도시로 집중하여 의료를 펼치고 있지만, 명성기독병원은 시골 오지의 교회를 지원하면서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필요에 응답하듯이, <표 11 참고> 하면 명성기독병원은 명성교회의 지원을 받아 현지 시골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진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에티오피아	한 국	세 계
총 인구 수(명)	93,877,025	48,955,203	7,095,217,980
산모 사망률(십만 명)	350	16	
신생아 사망률(천 명) <sup>104)</sup>	58.28	4.01	37.61
평균 수명(년)	60	79.55	68.09
출산율(%)	5.31	1.24	2.47

<표 19 > 에티오피아와 한국인 신생아 사망비율<sup>105)</sup>

케인의 ‘중 상류층을 향하는 경향’에 대한 비교 평가: 일반서민들을 향한 선교병원이 필요한 것이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선교병원이 중 상류층만을 향하는 선교의료의 전략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명성기독병원의 현상은 어떤가를 평가해보면, 일반적으로 저개발국가의 중상류층은 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대도시를 선호하여 치료를 받는다. 또한, 대도시의 중상류층의 일부는 치료차 주변 선진으로 보다 나은 병원을 찾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명성기독병원은 이러한 현지의 필요를 알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류층을 잡기 위해 최근 명성기독병원의

104) 명성교회MCM 운영위원회, *MMC, Love Ethiopia, Love Africa 화보집*, 192. 1년 간 에티오피아에서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폐렴(132,160), 신생아(118,000), 말라리아(94,400), 설사(94,400), 홍역(18,880), 에이즈(4,720), 기타(9,400)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의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1989년 1,658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에, 국민당 국립병원 의사 수의 비율은 약1:118,000으로 WHO의 개발도상국가 기준인 1:10,0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105) 명성교회, *MCM 백서*, 191.

의료선교 전략을 선진화하여 이들을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무조건적인 중 상류층을 향하는 의료선교전략이 아니기에 케인의 비판적 의견에 반하며 좋은 선교병원으로 모든 현지인을 흡수할 수 있는 경향으로 평가된다.

**케인의 ‘잘 훈련된 의료인 양성’ 필요의 비교 평가:** 케인의 지적은 의료인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 잘 훈련된 의료인이 양성되지 않는다면, 선교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몇 달을 걸려 배를 타고 올 때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선교지를 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나 달라져서 1년에도 몇 번씩 후원교회를 방문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의료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헌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이상적인 선교병원의 모델은 온전한 이양과 함께 건설한 현지 동역자들에 의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의료인의 양성에 대해서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케인의 주장은 이 시대와 조금 다른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주변에 쏟아져 나오는 의료인을 두고 대형 프로젝트인 의과대학을 또한 간호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명성기독병원은 최근 수년전부터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훈련된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케인의 ‘선교 의료를 통해 회심한 환자나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계속 훈련(Follow-up)’의 비교평가:** 케인이 지적한 병원을 통한 선교에서 문제점 중 하나는 진료 과정을 통해 복음을 접한 환자들께서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 선교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회심한 환자나 가능성 있는 장래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는 팀을 통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의료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의료사역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의 과정에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여기서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볼 때, 앞서서도 밝혔듯이 명성기독병원의 의료선교사는 환자들을 만날 때와 현지 동역자를 만날 때와 거의 흡사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를 만날 때는 환자의 아픈 육체적인 해결만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다

루어야 하는 의료선교사는 항상 쌍방향 소통과 수용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명성기독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사역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역의 평가를 해보면,

**명성의과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평가:** 이일을 위해 앞으로 명성기독병원과 후원교회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서 일하고 있는데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것은 좋은 의과대학생들을 확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다음으로 좋은 인재의 소속인 정교회 출신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지난 10주년 개원예배 때, 에티오피아 대통령과 에티오피아 정교회 대주교가 참석한 것은 대단한 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이슬람종교의 대학생들도 받아야 할 상황이 주어지면 받겠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맞게 문화적 소통으로서의 선교적 전략을 갖추기 위해서, 명성교회 ‘MCM 운영위원회’는 더 많은 선교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은 물론 좋은 교수와 병원 원장이 필수 관건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신앙으로 훈련받고, 좋은 장래의 기독교의 헌신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서의 평가:** 처음 2003년의 명성기독병원의 비전은 에티오피아 국내로 사역을 국한하고 있었지만, 2015년이 되어 12년 후에는 더욱 큰 비전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그 내용 중, 에티오피아를 표적으로 했던 것을 아프리카 전체로 병원사역과 복음전파를 확대 발전시켰다는 것과,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의료와 교육의 중심적인 면을 벤치 마케팅하려는 비전을 다시 세웠고, 더 나아가 세계교회 협의회(W.C.C)의 이념인 ‘연합과 일치’를 비전에 삼입한 것은 <표15참고> 고무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에티오피아에는 많은 부족이 있어서 서로 간에도 발음이 달라서 못 알아들을 때도 있으며, 같은 부족 사람 간에도 다시 물어봐서 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을 때가 많다는 경험을 현지 동역자간에도 서로 간에 문화를 존중하며, 또한 현지문화의 느낌을 인정하고 한국인들의 빠른 문화를 따르기에 힘들다는 현지 동역자들의 고충을 이해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은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현지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더 넓은 현지사역자를 이해하는 마인드가 준비되어야 한다

고 평가된다. 특히, 아프리카의 타 종교인 이슬람인 들과는 이미 수십 년 이상 공존해 오고 있지만, 이제 개신교로 들어간 명성기독병원의 위상이 그들에게 새롭게 각인되어야 한다는 것과 아직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큐메니칼(Ecumenical)의 사역으로 협력을 위한 분석 평가:** 명성기독병원은 세계교회 협의회의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함께 협력하며 교회의 일치를 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세계교회 협의회(W.C.C) 제 10차 총회가 2013년 11월 부산에서 열림으로 정교회와의 협력의 장이 열렸던 것은 명성기독병원의 에티오피아 정교회와의 협력의 장을 더 넓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명성기독병원은 현지 에티오피아의 정교회와 동역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에티오피아 정교회 대주교가 명성기독병원 1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한 것으로 보아, 명성기독병원은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정부와 협력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현지의 이슬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직원들과 협력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선교 접촉점인 명성기독병원이 협력하고 해결해야 할 사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의 교회가 가진 단점과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명성기독병원이 에티오피아 현장의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기 힘든 요소들에 대한 초석을 놓는데 명성기독병원의 후원교회의 국내 선교병원 의료종사자들과 잘 협력하고 있고, 이는 협력의 사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안동성소병원은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의 의과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며, 또한 현지 단기선교 팀으로 의료사역을 지원하는 것은 현지 에티오피아 병원 사역을 위한 자신들의 축적된 의료 기술(Know- How)을 전수하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

**팀 사역에서 상호 관계성에 관한 분석평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어디나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문화가 서로 다른 사역자의 팀을 리더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 이유는 선교 현장에서 자신의 일 만 아니라, 팀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서로의 삶의 문제까지도 소통해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명성기독병원은 사역의 특성상 팀과 후원교회, 선교사와 오지 선교지의 현지 동역자간에는 물리적 거리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사역자간 관계성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숨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명성기독병원의 사역자간의 관계성의 어려움

은 피할 수 없는 점으로 평가된다. 아래는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용의 글이다.

1997년1월 명성 메디칼센터 건립을 위해 계획세우고 기도한 결과로 아디스아바바 시청에서 남동쪽 7km지점의 국제공항 신개발지역에 자리했다. (면적:9만여m<sup>2</sup>-2만7,000여 평), 임대는 영구 무상임차조건으로 얻었다.(당시 시가 한화로 55억 원) MCM의 시작은 어려웠다. 첫 사역자의 비자문제, 건축 자재 부족 (중략). 2003년6월1일 처음 사역자로 문홍량 장로가 입국하면서 장기비자를 받는 것에서부터 공산치하에 있던 잔재로 경직된 관료주의적 사고방식, 업무처리의 장기소요 등, 치안의 어려움, 건축자재 절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건축자재 부족으로 벽에 부딪힌 공사로 인해, 현지의 지형을 알지 못하고 건축하여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 흠이 스핀지처럼 되어, 자갈을 깔고 공사해야함에도 알지 못하였기에 다시 부수고 하는 문제와, 또한 현지 인부들의 안일한 건축과정 등의 문제로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sup>106)</sup>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미 서구의 많은 의료선교단체는 시행착오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명성기독병원은 아디스 아바바에 후원교회인 명성교회는 비전을 세우고, 처음 계획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잘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차후에 이러한 강한 명성기독병원의 본부인 후원교회와 명성기독병원의 리더십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오는 어려움은 항상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106) 명성교회 30년사 편찬위원회, *주님의 옷자락 잡고*, 176.



## 제 4장

### 효과적 의사소통의 장애요소와 해결방안

선교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각하며 사역에 임해야 한다. 또한, 선교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경말씀에 입각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현지 문화에 있는 자신을 자각하며, 현지와 소통해야 한다. 또한,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현지 동역자와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사역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항상 돌아보고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 사역에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여기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 피력하고자 한다.

#### 제 1 절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무엇이 장애요소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장애요소의 정답은 하나일 수는 없지만, 이미 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연구된 것들일 수 있기에, 필자는 여기서 그들의 견해를 해결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의 장애요소를 다룰 터인데, 첫째는 아래의 표를 통해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선교사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장애요소로 구분해봤고, 두 번째로는 명성기독병원의 팀 사역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장애요소로 알아보고자 한다.

## 1.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 간 일반적 장애요소 평가

장 애 요 소	설 명
현장적응력 부족	선교사가 가장 필요한 자산은 현장 적응능력이다. 선교사 중 많은 이들이 현지에 적응 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만다. 또한 여기에는 부수적인 요인들이 많다.(가족의 건강, 자녀교육, 음식, 기후 등)
사회적, 문화적 적응의 장애	문화적, 지역적, 사회적 차이는 선교사를 외딴 섬에 고립되게 만드는 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질적 감정으로 인해 현지에 적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복음 현장에서의 복음의 잘못된 이해로 연결되게 만들어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 공간에서의 인간관계로 오는 장애	선교사와의 관계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소는 역시 선교사와의 관계이다, 매일 마주치는 선교사들은 서로 간의 장애로, 대화의 결핍, 사소한 오해, 시기, 질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공간에서 선교사들의 영성을 파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역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장애요소이다.
신뢰성의 부족으로 오는 장애	사역자간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는 신뢰성이며,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인데, 이 또한 오해의 요소가 신뢰성을 막는 요소이다.
수용성 (이해, 설득)의 부족	선교사는 현지인들에 비해 오히려 느긋한 생활방식과 자신의 문화와 다른 삶의 패턴을 적응하거나 수용하며 살아야 한다. 이는 현지문화를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해심과 수용자의 마음이 없다면 상호간 이해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문화충돌 장애	자국의 문화에 친숙해 있던 선교사는 갑자기 낯선 문화로 대체되면서 기존 문화에 대한 상실감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불안감이 문화충돌을 일으켜 나타 장애 요소가 된다.
선교현장의 인간관계 갈등	선교사의 또 다른 인간관계의 갈등은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대인간 능력(interpersonal competence)의 부족이다. 모든 사람은 타문화에 대해 수용적이기보다는 자문화 수용에 호의적이기에 항상 자국의 문화의 잣대를 대고 대인을 판단하고 수용하기에 이는 상호 문화 간 갈등인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문화 간 소통으로서의 장애 (국수주의로서)	모든 민족은 자국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상황들 또는 다른 준거 기준을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데 만약 타문화권에서 자국의 문화와 습관만을 고집한다면, 함께할 현지의 소통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언어의 오용과 오해로 오는 장애	선교사의 이해와 설득은 현지들에게 자신을 외지인으로 보일 때 친구로 다가설 수 있는 귀한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습득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다면 오해와 장애로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

&lt;표 20&gt; 명성기독병원 사역자 인터뷰 결과에 따른 장애요소

## 2.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 간 팀으로서 장애요소 평가

팀 사역에서 장애요소가 생기면 해결이 쉽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요소가 나타나면 팀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며, 또한 얼마나 심각한지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남을 비판하고 원망이 심각해지며, 편 가르기가 시작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뒷말을 하며 다른 사람과 했던 말을 옮기는 사람이 생길 경우 서로 간에 신뢰가 떨어져 별 뜻 아닌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합리적이며, 대개 찬성할 의견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거나 화를 참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이미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며, 이때 해결을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몇 가지 경우가 된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거의 헤어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인데, 예로는 아래와 같다.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자존심이 심각하게 상한 경우나 도덕성에 의심을 받은 경우, 신학적 갈등이 일어난 경우, 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오해로 생긴 문제를 교회나 선교본부에서 공식 지적받은 경우, 또한 부부간의 갈등, 현지인과 갈등, 후원교회와 후원자와의 갈등이 얹힌 데 덮친 격으로 갈등이 중첩된 경우, 팀 내 갈등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기질과 성격차이, 배경차이, 서로에 대한 무지의 오해, 팀 사역에 대한 무지, 역할과 위치를 배분하는 제도 미비, 리더의 대표적 실수들, 선교본부의 방치 등이 있는데, 이는 더 세부적으로는 인간적 갈등과 사역적 갈등, 제도적 갈등, 신학적 갈등, 재정적 갈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07)</sup>

장애요소	설 명
인간적 갈등	서로의 발언, 행동, 소문, 실수에 대한 지나친 반응
사역적 갈등	사역주도권, 열매 소유권, 역할 분담에 대한 불만
제도적 갈등	내규나 제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 불신, 오해, 전임리더와 후임의 해석차이
신학적 갈등	평신도 선교사의 설교 및 위상, 성경 해석의 차이, 교회 예배 내용의 차이
재정적 갈등	재정 남용과 오용, 불투명성

<표 21> 팀 사역자간의 장애요소<sup>108)</sup>

107) 심재두, *선교사 팀 사역과 갈등 해결* (서울: 좋은 씨앗, 2016), 119-120.

108) 심재두, *선교사 팀 사역과 갈등 해결*, 121.

## 제 2 절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

우리는 앞장에서 이미 사역의 장애요소를 알아봤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역자간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적 의사소통의 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앞장의 평가를 통해서 알게 된 장애요소들을 사역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정답이나 해답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나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과 견해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 1. 수용자 중심 원리로서 소통 방안

#### 가. 현장 적응력의 부족 해결방안

수용자적 중심원리중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 적응력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타지로 관광할 때 그들은 적응하려고 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관광하고 있는 곳에서 만나는 자신 이외의 사람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과 같이 이런 국수주의는 관광객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가질 수 있기에,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적응력 낮아져 사역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기에 항상 선교사는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sup>109)</sup> 적응력은 빠를수록 좋지만, 적응력이 낮아 1년이 지나도 부족하다면, 팀워크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5년을 적응해도 서로 간에 화합이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함께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더 좋은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교사의 스트레스는 사생활을 제대로 가 질 수 없게 만들며, 시간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선교사는 이러한 모습에 불만을 품은 현지들에게 늘 이단아로 남아 있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선교사의 삶에 있어서 적응력의 혼란을 가져주며, 선교사는 자신이 자란 곳보다 환경이 더 좋지 않은 곳으로 갈 경우 환경과 건강 편의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109) Herbert Kane,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백인숙 역 (서울: 두란노, 1980), 133.

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에 선교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현지 문화를 적대시하지 않고, 수용하며 현지 동역자들과 친구의 관계로, 또한 형제의 관계로 발전해나갈 때 적응력은 더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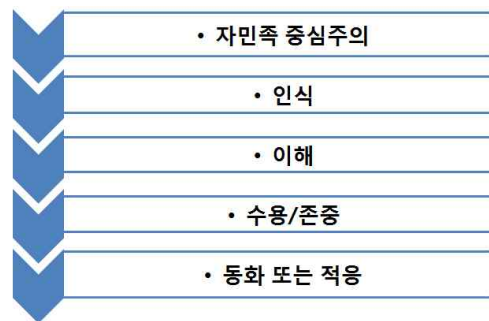
#### 나. 사회적, 문화적 적응의 장애 해결방안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착오와 이질감의 해결은 선교현장에서 중요한 소통의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바르게 다루지 못할 때, 때로는 갈등으로 번지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는 문화적, 지역적, 사회적 차이로 인해 오는 복음의 잘 못된 이해로 생기는 갈등이기에 때문이다. 이는 특히 동일한 문화권이 아닌 먼 거리에 있는 두 대화자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의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계 하에서 상호 수용자적 자세로서의 이해를 전제로 해야 소통할 수 있다. 이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입장처럼 문화적 가치와 신념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갈등의 한 유형이기도 한데, 행위 규범 간의 갈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한다. 즉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은 일차적으로 문화적인 영역에 놓여 있는 현실수준 하에서 문화적 갈등은 복합적이기에 주로 자국 문화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sup>110)</sup> 그러므로 상호 문화적 학습을 해야 한다. 필자는 여기서 문화 간 학습으로서의 원리의 중요성 피력하면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선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배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간 학습과정의 틀을 이해하고 학습할 때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5>는 후프스의 문화 간 학습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타문화에 대해 자민족 중심주의적 태도를 갖다가 점차 변화하여 최종적으로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문화가 우월함을 노골적으로 보이거나 타문화를 비하하는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타문화를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동기화 단계에서 문화차이를 발견하는 단계를 지나 문화를 수용하며 다음 자신의 문화와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적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sup>111)</sup>

110) T. Sellin, *Culture Conflict and Crime*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38);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167에서 재인용.

111) D. S. Hoope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ncepts and the Psychology of



<그림 4> 후프스 (Hoopes)의 문화 간 학습과정<sup>112)</sup>

#### 다. 한정된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해결방안

선교사는 늘 제한된 곳에서 사역한다. 이때 선교사를 어렵게 하며 좌절시키는 것은 먼 곳에 있는 다른 이가 아닌 선교사 내부의 알력이다. 이처럼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선교사들끼리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선교사들이 선출될 때 강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로,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선교지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허버트 케인은 말하기를, “선교사는 함께 모여살기에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 시킨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함께 모여 살면, 사소한 이야기도 부각되어 상대방의 가십 거리가 되기도 하며, 늘 자주 보는 이들 간에 대화요소의 결핍으로 인해 사소한 오해를 자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늘 일상적인 삶으로 변화가 주어지지 않아, 마치 갇힌 물과 같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는 환경으로 오는 어려움이다.

다음으로 대인간 능력(interpersonal competence)은 문화 간 갈등의 해소를 가져다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화에 젖어 있어, 타문화에 대해 수용적이기보다는 자문화 수용에 호의적이기에 항상 문화 간에도 갈등과 문화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선교사가 노출되어 있다. 홀(Hall, E. T.)은 이 분야의 선구자로 문화 간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는 문화적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문화 간 의사소통으로 보고 있다.<sup>113)</sup> 그러므로 문화 간 소통능력은 다른

Intercultural Experience,” in M. Pusey, ed., *Multicultural Education: A Cross-cultural Training Approach*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1979), 9-39;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86-88에서 재인용.

112)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87.

문화를 지닌 구성원들과 상호 접촉할 때 그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위와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에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에 대한 이해까지를 문화 간 의사소통 범주로 보았으며, 낯선 문화와 가치 체계를 이해하고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알맞은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행동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114)

#### 라. 신뢰성 부족으로 오는 장애 해결방안

사역자간 필요한 요소 중 가장 필요하면서도 갖추기 어려운 것이 신뢰성이다. 그 이유는 사역자간 서로 이해와 신뢰에 있어 장애 요소는 스스로 쉽게 오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습관 중, 주어와 목적어가 있는 분명한 문장으로서의 대화를 하지 않는 습관과 특성으로 인해서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종종 “했나?”라는 질문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생략된 언어적 문제로 인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오해적 요소는 사역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호 소통을 위한 분명한 언어적 신뢰성을 갖고 대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역자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대화와 삶속에서 필요한 효과와 만족성을 주기 위해서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해야 하는데, 적절한 관계성과 신뢰성이 라는 것을 알았다. 115)

113) E. T. Hall, *The Silent Language* (CT: Fawcett, 1959); 한국 다문화교육 연구학회, *다문화교육용어사전*, 166에서 재인용. 책에 의하면 ‘문화 충돌’은 친숙한 문화가 낯선 문화로 대체되면서 기존 문화에 대한 상실감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불안감이 문화충돌을 일으킨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이다. 예로 2005년 영국 런던 자살폭탄테러, 2006년 프랑스 이슬람 이주민 폭동 등, 서구사회에서는 서구와 이슬람세계 간의 대립구도 하에서 문화충돌이 발생하였다.

114) 한국 다문화교육 연구학회, *다문화교육용어사전*, 165 -166.

115)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114.



<그림 5>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 II 116)

이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를 볼 때, <그림5>에서 적절함 (appropriateness)은 상호 작용하는 행동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고 상대 문화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대감에 어울리는 정도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효과성 (effectiveness)은 의사소통 자들이 상호 공유하는 의미를 달성하거나 원하는 목표관련 결과를 달성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만족성 (satisfaction)은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만족스럽게 전달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화자의 의도 및 개념구조, 통사구조, 음운구조, 의미협상 과정 등에서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효과적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은 행동들처럼 문화적 의사소통의 장벽에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 수용성(이해, 해결)의 부족으로 오는 장애 해결방안

평소 자신의 삶의 패턴에 익숙해 있던 한국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의 생활방식의 패턴에 맞춰야 한다. 선교지 명성기독병원의 사역자는 매일 계속되는 병원의 환자들을 돌볼 때 마치 한국에서와 같은 시간적 압박을 받게 된다.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돌 봐야 하는 압박과 유혹을 느끼며 사역하고자 할 때, 자신이 사는 곳의 현장의 문화에 발맞추기보다는 즉, 현지들의 느긋한 생활방식을 이해하기보다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사역을 강요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수용성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동역자들과 영어로 대화를 할 때 한국선교사 또한 인내력을 갖고 대화해야 하는데,

116)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114.



만약 이와는 사뭇 거리가 먼 대화를 하는 반면, 서양선교사들은 몇 번이고 대답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수용성과 인내력을 요구하는 사역자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표현력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수용성의 부족과 이해하려는 맘보다 나를 따르라는 강요하는 식의 이해를 요할 수 있다.

수용성은 세계관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수용을 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온 것같이 선교현장의 현지인들도 자기들의 문화를 똑같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준거 기준이 설정되면, 발신자들은 그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신뢰성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들은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정관념이라도 그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sup>117)</sup> 수용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세계관의 변화는 주변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보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고무시켜야 하며, 주변적인 변화인 사회의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한 다거나 기독교적 변혁보다는 그들이 이해가 되는 점들이 더 많다는 사실로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잔물결의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sup>118)</sup>

그러므로 수용과 이해는 삶의 방식인 문화의 차이로 일어날 수 있기에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어떤 사역의 우선순위보다도 앞서는 요소가 될 것이다.

#### 바. 문화 간 갈등으로 인한 장애 요소 해결방안

의사소통의 능력을 신장하는 것은 선교사가 현장 적응에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언어적 습득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데 힘을 쏟아야 선교사가 현장을 배우려는 학습자의 자세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여야 한다.<sup>119)</sup> 이는 문화적 적응 정도의 인내심, 이해심, 협동심, 등이 필요한데,

117)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573.

118)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575.

119)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248-249. 여기서 Byram(1997)은 문화 간 능력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하고 있다. 태도(attitude)-호기심과 개방성을 갖는 것, 지식(Knowledge)- 다른 사회 집단 또는 문화권의 사람들의 문화적 양식, 산물, 가치 등에 대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할 때, 명성기독교 병원의 사역자로 든든히 설수 있으며, 현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나 최소한 현지의 공용어를 배울 때 문화 간 갈등의 요소를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 충돌은 친숙한 문화가 낯선 문화로 대체되면서 기존 문화에 대한 상실감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불안감이 원인이 되는데, 이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 예로 한국의 단일 문화권에서 별 어려움 없이 표현 하던 언어적 과잉 표현, 지나친 상대방의 간섭(strong will) 등은 선교현장에서 현지인과 당연히 어려움을 주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며, 상호 이해되지 않는 충돌적 요소로 항상 선교사는 조심하며, 현지인들의 삶을 배우고 수용하는 자세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타종교와의 충돌에 관한 것인데,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적대시 하는 이슬람인 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 이때 선교사는 복음전파에 있어서 급하지 않으면서도 느긋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의 정교회의 역할은 오래된 터줏대감과 같은 자신들의 역할을 명성기독교병원이 정교회의 정체성을 흔들며 놓는 역할이라기보다는 함께 복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 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는 큰 의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선교지는 교회와 달라서 성도들과 사역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교도들과 병원사역의 팀을 이루기도 하며, 더불어 친구로,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 그러므로 현지인들과 쉽게 문화적 충돌과 종교적 문제성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지 사역의 특성상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이는 언제나 믿지 않는 이들과도 명예를 같이 매고 살아야 하기에, 때로는 적응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현지의 문화를 더욱 친숙히 여기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 적극적 삶의 태도를 가져야하며, 어떠한 부류의 현지인과의 친구가 되어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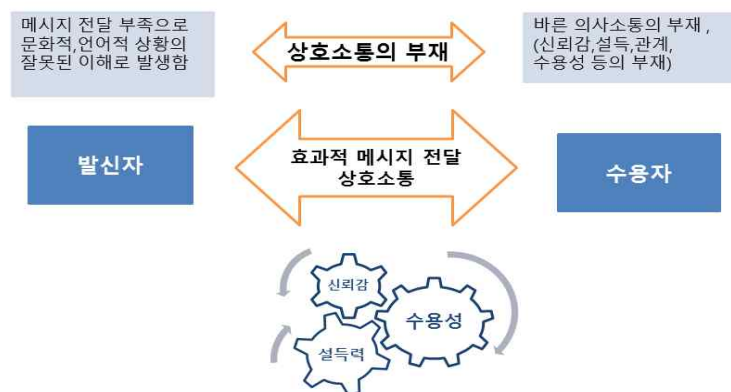
---

한 것들을 말하며, 해석기술(skills of interpreting)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외국 의 텍스트, 문서 등을 해석하고, 이들이 자신의 사회에 주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며 마지막으로 발견과 상호 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은 독자적으로 또는 대화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문화적 중요성을 발견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그는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갈 수 있는 자세는 곧 사역의 성공률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사. 인간관계 갈등의 해결방안

인간관계는 복잡다단하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문화적 감각은 상호 친밀성이나 개연성을 주기보다는 폐쇄성을 가지기가 쉽기에, 같은 상황 하에서도 서로 다른 행동의 결과와 이해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단일 문화권 하에서 살던 선교사는 타문화권 아래에서 많은 문화적 갈등과 인간관계의 갈등구조를 갖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권에서 메시지의 의미의 동일하게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현지 에티오피아의 여러 부족들과 만날 때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는 사역자간 큰 오해와 어려운 일들로 발전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단일 문화의 장점은 오히려 선교현장의 다중문화권 하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한국인은 쉽게 형과 동생으로 호칭하는 삶의 습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단일 문화권과 씨족문화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 부족 국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인간관계의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서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만이 좋은 사역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6> 의사소통의 문제와 해결방안 I

<그림 6>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이 일상의 대화에서 쉽게 신뢰감을 잃어버린다. 메시지의 전달의 부족은 오해를 낳고, 상대방을 질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특히 선교사는 더욱 취약하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첫째로,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인간은 대화할 때 일반적으로 폐쇄적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역자로서 항상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교사 자신과 대화하는 현지인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일상의 습관을 들이며, 때에 따라서는 특히 현지인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술이다. 둘째로, 동역자 존재를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장에서 선교사는 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어주고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현지 동역자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참된 친구란 서로를 격려해 주는 이들이다. 셋째로,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용서의 정신’이다. 이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모든 곳에서는 경찰들만이 있게 될 것이고, 범법자들만이 함께 일하는 감옥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로, ‘이해’는 좋은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이해를 통해 좋은 의사소통으로의 회복이 기다리며, 이는 사역의 건강한 인간관계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sup>120)</sup>

필자는 선교현장에 있을 때,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현지인이 살던 낡은 집을 고쳐 살게 된 경험이 있다. 그때 담이 없고 대문에 열쇠가 없는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미 그들에게 보인 선교사의 모습은 열린 마음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이웃들이 이해를 해주었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쉽게 친구를 얻게 된 좋은 방편이 되었던 것이 되었다. 또한, 현지들의 음식을 고의적으로라도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현지의 기후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현지의 전통 옷을 입고 그들의 생활양식에 함께 하여 길흉사를 함께 한 것은 그들의 삶의 예절을 배워 사회적, 문화적 적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20) Marion Meyers, *관계의 ABC (ABC's of Relationship)*, 강선규 역 (서울: 킹덤하우스, 2011), 21-24.

이슬람인 들이 왼손과 오른손의 사용에 대한 예의를 바르게 배울 때 선교사는 때로 버릇없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그들과 함께 가격을 흥정하면서 그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그들이 시간관념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될 때 문화적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갈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선교사의 삶은 목회적 삶과 달라서 그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 교인이거나 이교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삶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는 현지 동역자가 곧 중계인이며, 통역인이며, 친구의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맨(KeyMan)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나 현지 시장을 갈 때도 이러한 적응성을 가져야하며, 또한 현지인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적응력을 갖고 있을 때 해결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만약 선교사가 현장에서 현지어를 하지 못한다면 배워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것은 적응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항상 선교사는 열린 마음으로 현지인과 생활하며 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아. 문화 간 소통 장애 해결방안

명성기독병원 선교사들은 매일 사역가운데서 현지인들을 병원과 시장과 삶의 터전에서 만난다. 같은 문화공간에서 산다는 것은 동일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화 활동은 통상 다른 사람이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상호이해가 필수라는 뜻이다. 모든 민족은 각자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상황들 또는 다른 준거 기준들 안에서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통의 도구들 즉 소리들과 몸짓들에 관해 문화적으로 규정된 공통적인 동의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공간에 있는 이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간혹 문제로 작용하는데, 이유는 의사전달을 하는 모든 사람의 수단인 상징들(문화형식들)에 대한 의미들이 전적으로 그것들이 참여하는 준거 기준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효과적 상호소통을 위해서는 의사전달자와 수신자 모두가 채택된 상징들에 유사한 의미들을 부여하는 입장에 서야하며 이것은 그들이 한 준거 기준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sup>121)</sup> 하기에 찰스 크래

121) Charles H. Kraft, *기독교와 문화*, 264-265.

프트의 지론대로 우리는 동일한 준거 기준안에서 수단과 상징의 의미를 속히 이해하고 따르는 삶의 적극적인 자세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의사소통을 할 때,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그 문화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현지문화 내에서 통용되는 특수성을 가진 표현과 전 세계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보편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럼없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자국의 문화 우월주의와 또한 의미의 충돌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OK사인’에 대한 문화는 미국에서 출발 하여 ‘좋다’라는 의미로 통용되나, 만약 ‘OK사인’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에서 사용할 때는 아주 부정적이고 음란한 표현의 뜻을 가진 항문이나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가장 심한 외설스런 욕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22)</sup>

#### 자. 선교사의 언어의 오용, 오해의 해결방안

선교사의 언어로 인해 오는 오해의 해결방안으로 첫째, 항상 양방향으로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대화하며 사역에 임해야 한다. 양방향 의사소통은 서로가 수신자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해석하며 대화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정황이 신중히 고려되는 방식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수용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사는 준거 틀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선교지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언어의 오해는 많은 여가시간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간에, 마치 서로의 감정적 교류가 온전히 된다고 믿고 말한 선교사간의 대화가 되돌아서는 오히려 가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들도 매일의 삶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쉽게 많은 가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쉽게 가십으로서의 대화가 아닌 논박적 양면 메시지를 하지 않고 가십의 일종인 비논박적 양면 메시지의 대화를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앨런 등( Allen et al., 1990)은 양면 메시지를 비논박적 메시지와 논박적 메시지로 나누고 각각의 메시지 효과와 일면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결과는 논박적 양면 메시지 즉 반대되는 입장과 함께 반대 입장의 문제점까지 거론하는 메시지가 수용자를 설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비논박적 양면 메시지인 즉 반대되

122) <http://report.dreamwiz.com/view/4610689/>,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의사소통 실패 사례 및 평가’ 2016.12.6.일자 발췌. 서론 참고

는 입장을 전달하되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 논리는 제시하지 않는 메시지가 가장 비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한다.<sup>123)</sup> 더구나 선교지 상황은 비논박적 양면메시지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기에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설득’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득은 소통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일면 대 양면 메시지와 양면 메시지를 수용자를 확인 후에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sup>124)</sup>고 제언한다.

다음으로 자국문화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찰스 크래프트의 이론은 모든 인간이 상호 소통을 위해 의사전달을 할 때 서로 간에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 가능한 많이 아는 것은 구체적 상황으로 들어가 말하고 행하는 능력을 진전시킬 것이며, 수용자들이 작용하는 정황은 모든 의사 전달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에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한 ‘수용자’의 의미는 매우 능동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수용자들’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으며 ‘상호작용자들’로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sup>125)</sup>



<그림 7> 선교사의 상호소통의 역학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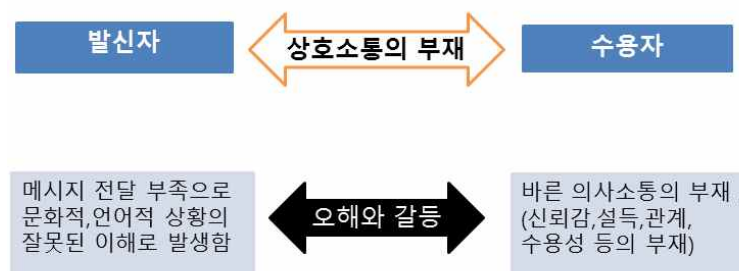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간의 상호소통은 선교사의 여러 가지 역할로 인해서, 선교사의 의사소통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시멘트와 집의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의사소통 기술이 좋지 못하면, 집이 무너지고 있거나, 곧 허물

123) 백혜진, 이해규 공저,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수용자·미디어 전략*, 6.

124) 백혜진, 이해규 공저,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수용자·미디어 전략*, 5.

125) 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68-69.

어질 지경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는 시멘트는 벽돌, 창문, 지붕 등이 각기 제 역할을 하며 하나로 엮일 수 있게 해 주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를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의사소통에서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착각이다.”라고 말했는데, 생각이나 감정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거나 나누는 것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의사소통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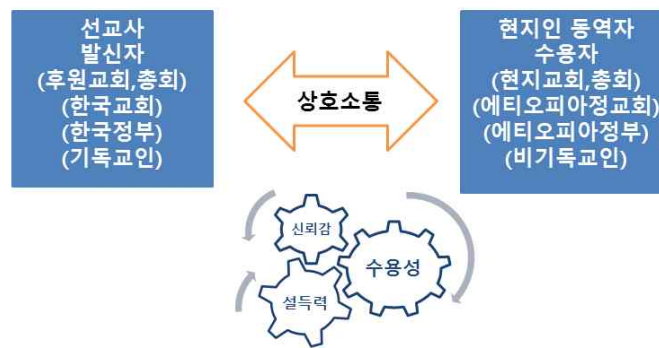
<그림 8> 의사소통의 문제와 해결 방안 II

상호소통의 부재는 결국 의사소통의 흐름을 막히게 하고, 고여서, 결국에는 썩고 마는 강처럼 되어 버릴 것이며, 의사소통 기술은 우리가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의도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의사소통의 기술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항상 생각하여야 한다. 그래서 배워야 할 의사소통의 세 단계는 받기, 반추하기, 응답하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받기는 귀를 기울여 듣는데 능숙해져야 보내지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저 조용히 듣고, 보고, 배우기만 하더라도 아주 많은 문젯거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잠21:23). 또한, 전도서 3장 7절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삶의 70퍼센트 이상을 의사소통을 하는 데 사용한다. 그 70 퍼센트 가운데서 쓰기는 9퍼센트, 읽기는 16퍼센트, 말하기는 30퍼센트, 그리고 듣기는 45 퍼센트를 차지한다. (Ralph Nichols & Leonard Stevens, *Are you listening?* (New York, NY: McGraw Hill, 1957, 6.을 보라). 이 때

126) Marion Meyers, *관계의 ABC*, 35-42.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 일반적 의사소통에서 사람들은 서로간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의미의 부정적인 면인, ‘더 나쁜 경우’는 ‘전달’되나, 꼭 들어야 할 대화의 중요한 내용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식적인 면은, 잘 듣기 위해서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정확한 추임새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질문을 적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두 번째로 반추하기인데 이는 내용을 풀어서 이해하고 느낌과 의미를 돌이켜보고, 정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반추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는 의사소통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만약 목사와 상담자, 선교사간에 역할을 수용한다면, 서로의 형편없는 의사소통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127)



<그림 9> 의사소통의 문제와 해결 방안 III

그러므로 의사소통의 해결방안으로 신뢰감, 설득력, 수용성이 준비가 되어, 삶의 근저에 기본이 되어야 상호 소통의 원만한 대인관계가 주어질 수 있다. 선교사는 항상 같이 생활한다. 집에서나 직장에서 늘보는 사람들이 타문화권에서 일하며, 후원교회와 한국교회와 현지인 동역자, 교회, 총회, 이웃등과 교제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방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응답하기로는 이 단계는 자신의 의견과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페이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말하기를 멈추면 필자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127) Marion Meyers, *관계의 ABC*, 35-42.

먼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한 말을 받고 반추하기 시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호한 단어를 쓰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인정하고, 대화중 화가 치밀어 오르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하며, 타협과 합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sup>128)</sup>

다음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에는 메시지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형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찰스 크래프트는 메시지의 여러 유형을 아는 것은 상호소통에 모두가 메시지가 속한 기능적 범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효과적 부호와 내용과 표현법에 따라 수령자들의 정황가운데에서 바람직한 충격을 주는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통(Communication)하며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sup>129)</sup>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선 이해하고 상대방의 메시지의 유형을 알고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장벽을 없앨 수 있고, 또한 문제점을 풀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의 유형을 아는 데는 먼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만약 문화를 잘못 이해하면 문화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오늘날 글로벌화로 점점 더 다문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가 현장의 세계를 인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회심리학자 미드(George Herbert Meade)는 사회화에 있어서 개인은 자신에게 주체로서 보다 객체로서 성립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은 사회의 총체로서 사회단체의 일반화된 관점으로부터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스스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선교사는 선교를 하러 가는 나라에서는 외국인, 바깥의 사람, 손님, 침입인, 그리고 아시아인, 또는 백인으로 비칠 것이다.<sup>130)</sup> 또한, 한국적 전통문화 속에서 젖어 있는 선교사역자는 타문화권 아래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분명 같은 메시지의 의미의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한국선교사의 삶은 다중문화권 아래서의 삶이 경험되지 않은 채로 이전의 단일민족으로서의 고정된 관념에서 혼란된 선교사가 타문화권에 노출될 때 느끼는 언어적, 문화적 감각은 개연성을 주기보

128) Marion Meyers, *관계의 ABC*, 43-44.

129) 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127.

130) David J. Hesselgrave, *선교 커뮤니케이션*, 77-78.

다는 폐쇄성을 가지기 쉽고,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행동의 결과와 이해와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에, 만약 고립된 고정관념의 범주에 있기보다는 인간다운 사람의 범주에로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 준다면,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더욱 중요한 사역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sup>131)</sup>

언어의 오해는 문화가 서로 다른 선교사와 현지, 또는 선교사와 1.5세, 그리고 3국에서 온 선교사 간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미 해석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화자들 간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언어적 장벽으로 오는 의미의 차이는 상당할 수 있다. 그중 의미의 차이로 인해 서로 중요한 의미의 전달을 잘 하고자 한다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문화적 요소들과 특히 선교현장의 요인들을 밀접하게 선행하여 이해하고 고려되어야 한다.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명성기독병원의 사역자는 언제나 현지 동역자들을 볼 때 그들이 또한 자신과 같은 입장에서 상호의 문화를 존중해 주며, 그들에게 선교사가 경찰의 입장이 아닌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해 나갈 때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함께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서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지 동역자인 수용자는 항상 상대방이 전하는 의미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며 발신자를 신뢰하려고 노력하듯이,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거나 거기에 준하는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 전달물을 해석할 때는 수용자 스스로의 능동적 평가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 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교지에서의 오해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활공간의 자신이 쌓은 담을 제거하는 것이다. 문화의 담을 제거하고, 언어의 담을 제거하며, 현지인들과 함께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컴파운드(Compound)는 모든 선교사가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관계성 훈련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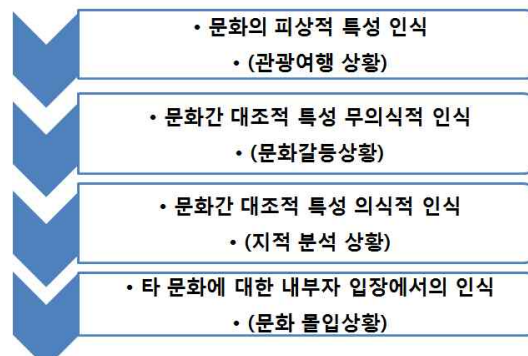
선교사가 현지에서 오해나 자존감의 약함으로 오는 관계성의 어려움에는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안식년이란 재충전의 기회를 주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31)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241.

선교사는 쉽게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지 않도록 재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휴식의 시간인 안식년이 필요하다. 이는 사역자를 세우기 위함이기며, 후원교회와 함께 그들의 문제점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역자 확보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럴 때 선교사들은 재충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티오피아는 정교회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가이다. 또한, 이슬람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전도하는 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명성기독병원을 선교의 매개체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참된 복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병자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셨던 것과 같이 통전적 선교를 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는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도인 정교회인들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한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한다. 2013년 10월에 가졌던 W.C.C 총회로 인해 정교회와 앞으로 세계선교의 협력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교회와의 협력이 쉽지 않은 것을 거울삼아 인내력을 갖고 사역에 임해야 할 것이다. 명성기독병원은 현재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한 정교회를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함께 일 해야 한다.



<그림 10> 한비(Hanvey)의 문화 학습 모형<sup>132)</sup>

132)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86.

### 차. 문화 간 학습의 방안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해결 방안은 문화 간 학습방안이다. 그 이유는 만약 문화 간 의미 해석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문화적 요인들이 밀접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미의 차이로 인해 서로 중요한 의미의 전달을 잘 하고자 한다면, 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주의하여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예로 언어학을 미국에 공부하러 간 한국학생과 미국인간에 'patronize'란 단어의 의미는 한국인에게는 '후원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의미이지만, 미국인에게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133)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잘못 선교하면 선교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을 미끼 이론(bait theory)이라고 한다. 이는 의료를 영혼 구원을 위한 미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134) 그 이유는 고통 아래 놓인 인간을 예수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사랑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바라볼 때 전인적인 치유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본인은 선교지 인도네시아에서 운전조력자로 함께 한 이슬람인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 5년 정도까지 필자는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 조력자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가 어느 날 인도네시아 족 자카르타(Yg-jakarta:인도네시아 중부자바에 위치한 고대의 수도)에 있는 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온 후, 그가 나에게 스스로 고백 한 말은 자신이 이슬람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 학교를 다녀야만 했던 배경을 말하면서 복음에 상당히 열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후에 자신의 딸이 기독교도인과 결혼을 한다면 자신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삶을 통한 복음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 간 차이를 잘못 해석하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수용자 중심적 입장과 팀 사역의 원리로서 함께 의사소통 할 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133)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120-121.

134) David J. Seel, *Challenge and Crisis in Missionary Medicine* (Pasadena, CA: William Cary Library, 1979), 18; 김민철, “선교의료의 상황화 적용에 대한 연구”에서 재인용.

오늘날의 선교현장은 어디인가라라고 묻는다면, 현대는 전 방위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역의 현장에서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다는 뜻이며,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는 자 즉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완벽한 모범을 찾을 때 예수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는 항상 보내신 이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잊지 않으셨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아셨으며,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는데 맞추셨기에,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준거가 바로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요 17:18)라고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를 파송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보냄을 받은 자나 보내는 자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성육신화하여 일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어진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 2. 협동의 원리로서 소통방안

명성기독병원의 사역의 특성은 팀 사역이다. 환자를 진료할 때도, 무료 이동진료를 할 때도 홀로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행정도 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협동 원리’는 명성기독병원이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원리로 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는 수용자 중심의 소통원리으로써는 팀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기에는 부족한 원리라고 봤다.

협동원리의 요소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로, 책임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약속을 지킨다. 그런데 선교사는 더욱 책임감이 중요하다. 책임감을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매우 강력한 감정으로 나타난다. 책임감에는 신뢰감이 숨어 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동역자를 돕고 함께 일할 때 서로는 끈끈한 사역자로서의 밋줄로 연결될 수 있다.<sup>135)</sup> 이는 다른 말로 양방향 소통의 원리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감이 없거나 오해의 요소가 있을 때 팀 사역의 장애요소는 항상 도사리고 있

135) 심재두, *선교사 팀 사역과 갈등 해결*, 121.

다. 아래의 표는 어떠한 갈등요소와 예방요소를 잘 정리해 놓았다.

장애요소	예방요소
인간적 갈등	팀 사역에 대한 바른 교육, 인간이해(특히 팀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현지 팀제도 확립과 합의, 사랑과 순종의 역학 정립, 팀장의 수용성 있는 선택
사역적 갈등	선교본부의 개입과 상호이해 주선, 스트레스 나눔과 극복, 수련회, 개인 상담, 문제의 원인 규명, 적절한 시비 결정 및 수용, 평소 상호신뢰와 의사소통
제도적 갈등	선교본부의 공정한 개입,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 팀 운영의 지혜와 전략 연구
신학적 갈등	팀 구성 단계에서 신학적인입장이 다른 사람은 걸러냄, 수용하는 자세, 겸손하게 자문을 구함
재정적 갈등	재정의 정확성, 정기보고, 잘못된 처리를 바로잡음

<표 23> 팀 사역자간 구조적 갈등의 진단과 처방<sup>136)</sup>

위의 도표를 보면 팀원 모두의 상담과 치료, 선교부의 개입과 재구성, 또한 합의 하에 팀을 여러 작은 팀으로 다시 분리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는 사람을 보고, 문제 해결보다는 화평과 화목에 무게를 두며, 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형평성과 현장성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진실을 따져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과장은 배제하며, 상호 양보의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음을 주지하고 사역자들과 항상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갈등을 정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37)</sup>

선교현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선발할 때 우리는 많은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의사를 훈련시킬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마치 의사들이 밤낮 수술팀을 통해 한 팀이 되듯이, 영적으로 현지들을 돌보고, 현지인들의 아픔을 돌보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팀원으로서 함께 사역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에 열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 사 전도도 하셨던 것” 처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고, 밀접한 인간관계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도하며 일꾼을 선발하고, 기도하며 사역자들을

136) 심재두, *선교사 팀 사역과 갈등 해결*, 121.

137) 심재두, *선교사 팀 사역과 갈등 해결*, 121, 131.

보내야 한다는 것인데 일꾼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충성된 사람을 선별하는 방법은, 충성된 사람(faithful), 유용한 사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사람(available),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등을 불러서 훈련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남의 말에 험담을 하는 사람은 일꾼의 자격이 부족하며, 실로 후에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없게 되며, 리더십의 자리에 설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필요한 요소는 영혼에 대한 사랑, 배가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 섬김의 태도, 팀워크를 생각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 본을 보이는 사람, 생산력 있는 증인, 성경공부 인도를 경험한 자, 다른 사람에게 민감함을 가진 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다.<sup>138)</sup>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명성기독병원은 명성교회가 세웠다. 처음 세울 때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명성교회 창립35주년의 일환으로 새 병동을 증축한 동기는 6.25 전쟁 당시 U.N 연합군의 자격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에티오피아 황실의 군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무료진료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sup>139)</sup> 이러한 명성기독병원의 영향으로 인해 현지들은 “명성기독병원(MCM)”이라는 공칭 명칭 대신 “한국병원(Korea Hospital)’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현지들에게 명성기독병원은 애정이 깊은 병원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호의적 평가는 계속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병원선교사역의 성공적인 발전과 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현지 동역자들과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명성기독병원은 더 나아가 부속병원인 의과대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인재들을 병원으로 수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변의 병원과 의사들과 협력과 일치운동(Ecumenical Movement)의 일환으로 주변 대학에서도 졸업생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38) 전우택 외, *의료선교학*, 309

139) “에티오피아 **MCM** 기독병원 20주년 새 병동개관,” *한국기독공보* (2015년 7월 25일), 7. 명성기독병원에 최신 진단장비 및 침단장비를 보유하기 위해, 시공과 모든 부분을 신경 썼다는 명성교회 건축위원회는 모래와 자갈 이외에는 모두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공수했으며, 항구가 없어 소말리아를 통과하는 부담 속에서 일 했다. 또 시공 관련 기능공과 건설 장비를 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많은 이들의 헌신과 협력 속에 새로운 병동을 건축해 낼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명성기독병원의 의사소통통의 일례로, 1895년8월 22일 조선의 외부대신 김윤식이 미국공사에게 보내온 편지를 보면, 언더우드의 선교사역에 큰 감명을 받은 공문서와 선물을 보내왔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는 그 글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미국공사 실 씨에게 본인은, 콜레라 진료를 위해 많은 돈을 쓰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OOO씨와 그의 친구들에게 삼가 우리 정부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우리 정부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윤식(도장) (중략) 병원에서 일을 거들었던 선교사들은 많은 선물을 받았다. 내부대신의 이름과 그것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비단 두루마기와 부채, 그라고 자그마한 은제 잉크스탠드들이었는데, 물론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선물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조선 정부와 조선 사람들이 주님의 대표자인 우리를 쓸모없고 별로 가치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들의 친구로 또 우리가 그러려고만 든다면 자기들을 돕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sup>140)</sup>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삶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교사역은 힘든 헌신이 뒤 따른다. 명성기독병원의 특성상 의료선교는 생명을 다루기에 더 어려운 사역이다. 이러한 사역의 모본을 아래의 호스턴 언더우드 부인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전략), 그러나 우리는 우리 환자들이 꽤 많이 목숨을 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65퍼센트가 회복했다는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며 이것이 우리 진료소의 기록이었다. 하느님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는 이같이 엄청난 치료 실적을 기록했으니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많이 살물을 썼고, 둘째, 환자의 체온이 회복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질 때까지 환자를 아주 뜨거운 방바닥에 눕혀 놓았으며, 셋째, 원주민 기독교인들의 양심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간호가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중략) 우리는 환자 172명을 받았고 거기서 62명이 죽었다. 18명은 도착했을 때에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95명은 몸이 뻣뻣하게 굳은 상태로 들어왔는데 그중에 42명이 죽었다. 35명은 몸이 아주 쇠약한 지경이었고, 그중에서 2명이 죽었다. (중략) 나머지는 모두 회복되었는데, 이 사실

140) Lillias S. H. Underwood, *조선견문록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김철 역 (서울: 좋은 씨앗, 2016), 182-183.

은 이 도시 안에서 적지 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마을주민의 거의 3분의 2쯤이 죽은 곳에서는 더욱더 그랬다. 기독교 병원에만 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전문이 담벼락에 붙어 있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환자를 돌보는 선교사들을 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외국인들이 어찌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 사람들이 남에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라도 할 수가 있을까?” 여름날 아침 어두운 여명 속에서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는 언더우드 씨를 본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는구나. 저 분은 한시도 쉬지 않고 병자들과 함께 밤낮을 일하고 있다네.” “무엇 때문에 그러지?”하고 다른 사람이 물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는 것이 그 대답이었다. 우리의 봉사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보답이 어디 있을까! 그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의 눈앞에 주의 모습이 좀더 분명히 다가올 수만 있다면 돌림병을 통째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다.<sup>141)</sup>

선교사는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한 보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 일하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 도다. 나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는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보냄을 받은 자’ 는과 ‘보낸 자의 뜻’을 헤아려 사역에 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가 가진 자문화적 요소를 버리고 현지 문화와 동화되어 현지인들의 삶의 정황을 직시하는 사역으로 임해야 한다. 이때 선교사는 현장에서 있는 모든 것을 재현장화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해 선교사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있는 잘못된 것들을 복음 안에서 탈 상황화를 해나가야 한다.

명성기독병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지병원으로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다. 이는 명성기독병원이 ‘코리아 하스피탈(Korea Hospital)’ 라고 현지들이 부르는 것을 보면, 많은 현지인이 명성기독병원이라고 하면,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즉 웃음이 나올 정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현지인들을 통하여 김윤기 선교사는 전하였다. 이처럼 현지인들은 명성기독병원을 신뢰하여 이 병원으로 가면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교적으로도 좋은 현상

141) Lillias S. H. Underwood, *조선건문록*, 179-182.

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선교의 적기’라 말하는 최고의 기회를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성기독병원의 협력사역과 주요사역들은 결국 아프리카선교의 전초기지요, 교두보의 역할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에티오피아에 마치 세브란스 병원과도 같은 병원을 세워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명성기독병원과 선교사는 후원교회와 함께 이 일을 위해 모든 전략을 잘 준비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정부와 에티오피아 정부와 협력<sup>142)</sup>하여, 좋은 협력 관계에서 사역을 이루어갈 때 명성기독병원의 위상을 더 높이고, 에티오피아인들에게 궁극적 복음의 나눔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또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랑을 전하여, 선교지에 꽃을 피우고 복음의 결실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명성기독병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에티오피아에 잘 뿌리내리고, 더 나아가 그들 스스로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사역의 장이 될 때 우리는 효과적 의사소통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역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142) “에티오피아 MCM 기독병원 20주년 새 병동개관,” 7. 명성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서울 동남노회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시무)가 6.25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에티오피아에 감사하는 의미로 20년 전 세운 MCM기독병원(명성기독병원의 옛 호칭)이 최근 새 병동을 개관했다. 이를 기념해 10일 현지 MCM병원 내 굿 뉴스명성국제교회에서 새로운 병동개관 감사예배가 진행됐다.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한 에티오피아 현 대통령 무라투 터쇼메(Mulatu Tsshome)은 말하기를 “명성교회와 에티오피아가 자매 결연을 맺어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의료분야에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쟁을 통해 혈맹으로 맺어진 우호관계는 특히 MCM기독병원을 통하여 이루어 낸 두 나라 국민간의 우호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 제 5 장

## 결 론

현대는 글로벌화의 시대요, 점점 더 다문화의 구조를 이루는 시대이다. 또한, 이 시대의 선교 역시 지난 10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변화무상한 현장을 맞이하고 있다. 30여 년 전만하더라도 선교지에 파송할 때는 한번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선교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SNS로 고국과 통신 하고 마음만 먹으면, 귀국할 수 있는 선교의 구조로 바뀌고 있다. 또 선교사는 대중교통의 발달로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현장에서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효과적 의사소통이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가진 문화 간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 또한 소통에 어떤 것이 장애요소이며,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결국, 이 시대를 사는 선교사들은 많은 문화적 감수성 즉 다문화 감수성<sup>143)</sup>이 필요하며,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효과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성공적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143)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104. 다문화 감수성(Multicultural Sensitivit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는 둘 이상의 문화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경향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문화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능력으로 타문화와 그 문화의 사람들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의 고정관념을 돌이켜 봄으로써 생기는 깨달음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다.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한 개인은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이고 뛰어난 공감의 능력으로 참여적인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상대방과 소통함에 있어서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진지하게 경청하여 이해하려고 하며,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타문화와의 문화 간 차이를 경계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 제 1 절 요약

서론에서 제시한 필자의 연구 동기는 문화 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거리를 좁히고자 선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의사소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기 위해 케이스 스터디 한 것은 2장의 이론을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요소를 알아봤고, 성경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인 하나님은 소통을 원하시며, 듣기를 원하시고 경청하시며, 이해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찰스 크래프트와 폴히버트는 수용자적 중심적 소통 이론을 제시하였고,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이 선교지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보니, 특화된 명성기독병원은 팀 사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추가 이론을 더할 수밖에 없는 선교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호협동의 원리’와 ‘모유수유의 이론’을 더할 때, 병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 또한 환자까지도 전인적으로 성육신화 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 3 장에서 명성기독병원의 의사소통 현황과 사례 분석 및 평가를 다루었는데, 그 현황으로는 명성기독병원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으며, 세운 주체는 후원교회인 명성교회인데, 그중 김삼환 목사의 목회철학(Vision)이 병원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그는 이 병원이 세워지기 전부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했으며 결국 이러한 사역의 성공 비결은 누군가가 계속적인 비전(Vision)을 품고 성취를 위해 끊임없는 상호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한 사역자간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 명성기독병원의 의사소통의 구조를 보면, 선교사와 선교사간의 의사소통구조와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간의 의사소통의 다중적 소통구조를 가졌으며, 또한 팀 사역의 구조를 중요시 하여야만 하는 병원선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 4 장에서는 의사소통의 장애요소와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인터뷰를 통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제시는 일반적인 학자들의 연구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현지 문화 적응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상호이해성, 전통문화의 차이점

으로 오는 문화적 소통의 문제 등이 제시되었고, 특히 병원사역의 특성상, 팀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인간적 갈등, 사역적 갈등, 제도적 갈등, 신학적 갈등, 재정적 갈등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교사의 개인적 일상의 문제보다는 보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 방안으로는 관계성의 문제와,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 선교본부의 계속되는 재교육과 휴식의 제공, 수용하는 자세, 재정의 정확한 집행과 정기적인 보고 등이 방안으로 나왔으며, 팀 운영의 지혜와 전략의 연구, 팀 사역에 대한 바른 교육과 인간이해, 팀 사역의 어려움으로 인한 양방향 소통의 문제점들을 훈련을 통하여 해결할 때 효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효과적 선교사역은 서로 간에 참된 의사소통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 보낸 자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으며, 결국은 성육신적 소통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선교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처럼 선교사역에 임하는 모든 선교사는 다음의 두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개인적으로 의사소통 할 때는 모두가 수용자요, 발신자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이해해야 하며 특히 수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는 팀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양방향 소통의 자세와, 때로는 수용자의 자세를 혼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것을 권한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한대로, 의사소통의 주체는 예수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할 때 더 나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장래에 명성기독병원은 한국이 자랑하는 선교병원이요, 에티오피아에 세워진 병원처럼 제 2, 제 3의 선교 병원이 세계 방방 곳곳에 세워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선교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 제 2 절 선교적 제언

비전성취를 위해 리더의 스피치를 강의하는 한국비즈트레이닝 대표인 안미현은

이렇게 제안한다. “일반 사원과 리더가 보는 앞날의 종합 계획은 각각 다르다. 일반사원이 한 달을 내다본다면, 리더는 1년을 보고 사장은 30년을 보고 일을 한다.” 그렇다면 리더의 크고 원대한 비전을 어떻게 팀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30년을 내다보는 마인드로 보자면 그날그날의 일처리에 연연하는 부하가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직원들로선 30년 뒤를 고민할 여유와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일반 사원과 리더의 위치이며, 비전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의 폭과 비전을 공유하려면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sup>144)</sup>

첫째로,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해, 선교사는 현지 동역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수용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것은 결국 선교병원의 마지막 사역자는 현지 동역자들 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사명의식을 키워주는 사역을 해야 한다. 또한, 선교사는 현지 동역자들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현지 정교회의 뿌리가 깊은 에티오피아 현지교회들과 어떻게 함께 동역해야 하는지를 두고 항상 대화를 해야 한다. 또한, 현지 이슬람인들과 함께 사역해야 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정부의 정책과 함께 더불어 현지문화에 맞게 그들과 더불어 사역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Sitz im Leben)인 직장에서 또한 병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의료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30여 년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커터(Louis Carter)는 “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논문을 통해 의료선교사는 병원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거나 교육을 하러 다니는 것에 불평을 토로하여, 많은 의료선교사가 자신이 일하던 당시의 의료 상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료 선교사가 병원에서 의료를 수행하는 것 외에 병원을 넘어선 사역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에<sup>145)</sup> 반하여, 의료선교사는 자신이 가진 선교의 접촉점인 의료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역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선교사는 주변의 현지 동역자들

144) 안미현, “리더의 스피치’ 비전공유를 위한 소통의 기술,” *한국경제매거진*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nkey=2012081600872000351> &mode =sub\_view. 2016.2.28.일자 발췌.

145) Louis Carter, “Is Medicine not Enough?,” *Evangelical Mission Quarterly* 40:1 (January 2004); 김민철, “선교의료의 상황화 적용에 대한 연구”에서 재인용.

에게 복음으로 소통 할 수 있게 되며, 선교병원이 세워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로,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뜻을 헤아려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비전을 제시한 이들 즉, 후원교회와 선교본부와 또한 병원의 이사들의 리더십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선교사는 전방의 사령관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선교사가 선교필드에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일을 하지만, 후방의 본부와 경청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사령관의 명령 또한 그가 속한 국가의 지령을 받아 지휘하듯이, 선교사도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청하여야 하는데, 후원교회뿐만 아니라, 현지 동역자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선교사는 팀 사역에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팀을 위해 한 목소리로 소통해야 한다. 명성기독병원은 팀 사역의 현장이다. 아무리 혼자 수용자의 마음을 알아도 몇 가지의 서로 다른 생각과 결론에 도달했다면, 개인적으로 그 사역이 성공할 수는 있어도 팀으로서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역자는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 병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선교사 자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병원은 단지 복음 이외에 그 어떠한 목적의식도 필요치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째, 명성기독병원의 모든 사역자는 병원 안팎의 협력사역에 소통을 해야 한다. 모든 선교사는 환자뿐만 아니라, 현지 정부와 모든 관계된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야 한다. 정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개신교의 교리와 같이 한다면,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이념인 화합과 일치(Ecumenical)의 선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역자 들은 현지 정부와 모든 협력단체와 “상호 수용적 의사소통”을 위한 이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교지에 병원을 짓고, 선교사를 보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선교사와 후원교회의 비전적 코드가 같아야 한다. 만약 선교사역지에 있는 병원이 처음의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혹 사업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을 위한 선교병원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와 후원교회, 그리고 현지 동역자와 명성기독병원과의 그 코드는 항상 일치하는 비전의 공유가 있어야 하며, 늘



상호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해하고 서로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럴 때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파될 것이며, 사역자는 더 많은 선교사역을 이루고, 복음의 귀한 결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부록 I. 인터뷰를 위한 사전 설문지

###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

이 인터뷰의 목적은 발·수신자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신뢰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수용성에 관한 연구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선교지와 후원교회를 위해 일하는 선교사는 두 문화권 속에서 전달자와 명령자의 관계성 속에서 사역하게 된다. 이는 ‘전달과 수용’이라는 서로의 입장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말로 ‘피수용자’와 ‘수용자’의 입장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명령자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용자의 입장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받는 선교사는,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메시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삶의 현장(Sitz im Leben)에서 주어진 여건에 맞게 현장화해야 하는 사역의 경험을 하게 되며, 그 현장에 맞는 전략을 세워가야 하기에 여기서는 후원교회와 선교현장의 틀에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선교현장에 후원교회의 역할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은 명성교회 해외 선교부 산하 소속된 명성기독병원 후원 본부(“엠시엠-MCM- 운영위원회”로 이하 칭함)로서 피수용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며, 소통의 또 한부분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음 명성기독병원 설립 때의 비전을 병원과 후원교회 선교 본부는 어떻게 인지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와 여기서 문화의 개념과 이중문화의 개념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서 후원교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자로서 또한 수용자의 입장을 동시에 이해해야만 사역의 효과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인터뷰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것은 쌍방향의 메시지의 소통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전달과 수용의 의미에서 상호 소통과 의사 전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두 쪽을 양 축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선교 사역자(후원교회의 운영위원회, 현지 원목과 전문인선교사들, 현지 동역자들, 또한 현지인들)을 포함하는데, 실제로, 한국인 선교사와 선교사간, 한국인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 간을 수용자의 입장으로 “효과적 전달과

수용”의 의미에 있어서 실제 명령자가 나머지 모든 사역자와의 수용자적 입장에서 메시지 소통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그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터뷰의 소요가 60분에서 100분까지로 될 수 있으며, 그 상황에 맞게 녹취와 면담을 병행한 후, 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명성기독병원의 효과적 사역전략을 찾는 방법으로 전개하게 될 것이다.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곧 명성기독병원이 세울 때 가졌던 비전부터 현재까지 병원이 복음과 문화적 현장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현지의 선교사들(현지 동역자들 포함)과 후원교회와의 의사소통 경험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이기에 나는 여기서 현상학 연구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이 연구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경험의 의미나 본질을 밝히는 것으로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사태 자체로 되돌아가서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의 이념이나 수용의 정도 등을 그대로 의사소통 경험을 전제 없이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그대로 기술하여 있는 그대로 기술, 사태를 보여주어 현지 선교사들 간의 소통을 분석하고 전달의 의미에서 병원선교사역의 비전과 미션대로 움직이는지를 총체적으로 접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의미를 찾아 효과적 수용과 전달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고 하였다.

##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수용자’의 입장에 있는 사역자들을 선별할 것이다. 그 구성원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목회자 선교사 2명 또는 3명(단기 견습선교사 2명), 의료선교사 2명, 전문인 선교사 2명(행정), 간호사 선교사 2명, 현지 동역자(원목실 2명, 행정 보조 2명, 간호사 2명) 정도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더 설명한다면, 목회자 선교사는 원목실이나, 교회개척사역을 해본 철수한 장기선교사도 대상(혹 1년간 짧게 사역한 견습선교사(신학생이나, 전문인 사업가 등도 인터뷰에 포함)이 되어 선교현

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광범위한 분야의 모두를 연구에 참여자로 선정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전달자’의 입장에 있는 후원교회 사역자들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 할 것이다. 여기의 인터뷰 대상자는 후원교회와 연관된 ‘MCM 운영위원회’ 관련자가 1-3명으로 선별될 것이고, 가능하면 후원교회의 담당 목회자도 선별하여 인터뷰할 계획이다.

###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본 연구자는 과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13년간 근무하면서 이중 문화권(Inter-Culture)에 대한 고민을 자주 했다. 그리고 장신대 선교학 석사과정(Th. M)을 이수하면서 이중문화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달과 수용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고민했기에, 이번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현장의 소리를 담기에 선교지와 후원교회, 선교사와 현지인 간의 서로 간에 다른 이중문화권에서의 삶과 사역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해 효과적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을 해 왔기에 이 논문은 선교지현장에 관한 후원교회의 의사소통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 윤리적 고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내용을 인터뷰 사전 설문지에 적었으며, 인터뷰 초반에 약속하게 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비밀이 보장되기 위해서 특수 기호로 컴퓨터에 보관하게 될 것이며, 개인 정보는 보호를 위해 사적인 자료를 모두 제거하였다. 그리고 면담 전에 연구목적과 면담내용이 녹음되고 필사되어 연구에 활용되게 된다.

###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효과적 전달”의 의미로 본 ‘소통’을 타문화권에서 연구한 내용의 논문을 찾아봤지만, 쉽게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반적 효과적 전달에 관한 논문

은 ‘임상실무에서 간호사가 겪은 의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이란 논문을 국립순천대 간호학과 박광옥이 연구하여 간호행적학회지에 낸 것을 바탕으로 하였고, 두 번째로, 나의 논문의 특성상 타문화권의 소통을 다루어야 하기에,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상담원 송미경 외 3인이 연구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 20 No.2, 497-517, 2008)것을 토대로 연구의 기초로 사용하였다.

그중 질문은

- \* 에티오피아에서 문화적 혼란을 겪어 본 적이 있습니까?
- \* 에티오피아인과 한국인을 비교하여 설명해보세요?
- \* 전통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현지에서 생활 하면서 기대되는 것과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으로 사역자간의 소통에 관해서는 사역지와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질문으로, \* 의사소통 중,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 있습니까?

- \* 어떻게 해결(도움을 받은 지지체계나 대상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하였나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후원교회의 사역자들에 관해 그들이 얼마나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의 문화에 관심 있는가를 간단히 알아볼 것이다.

위의 질문사항들을 갖고 면담과 내용을 정리하고, 특히 사항은 메모와 분석과 자료 정리하여 참고 한다. 1인의 면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녹음이 가능한 장소로 시간은 약 40분에서 60분으로 하며, 참여자 1인 1회로 한정하여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위주로 경청하면서 공감적 반응과 관심을 갖고 경청하여 녹취하게 되었다.

### 자료 분석(인터뷰)

면담시작 시 참여자에게 동의를 재차 구하고 녹음하며, 녹음된 자료는 또한 한글로도 입력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는 입력된 자료와 녹음내용을 대조해가면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것이다. 자료는 Colaizzi[13]의 방법<sup>146)</sup>으로 분석, 중요내용은 기록하고 다음

146) 유기준, 최영희가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자료 수집 후 자료 분석의 방법은

면담 시에 참고하였고 참여자의 의사소통의 경험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을 찾아 기술하고, 추출된 의미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간추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다시 기술하였으며, 명확한 의미를 찾아 주제를 분류하고, 분류된 주제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범주화 할 것이다.

###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sup>147)</sup>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위해 Colaizzi(13)가 제시한 방법 을 적용하면서, 연구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점검 받게 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는 에티오피아 명성기독교병원(MCM)의 사역이 한국의 명성교회에서 출발하여 시작된 모든 사역의 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취하며, 참된 의미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타국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선교사가 현지인들, 또는 3국의 선교사들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과 갈등, 소통 등을 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면서 효과적 전달, 즉 수용의 정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들을 정리해 전략으로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

---

Colaizzi, Giorgi, Spiegelberg, Van Kaam, Van Manen, Benner, Paterson과 Zderad 등 다양하다 (김분한 외, 1999; 김윤나, 2008; 박희은, 2010). 이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인 Colaizzi의 분석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분석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대상자의 의미 있는 진술에서 구성된 의미가 도출될 수 있으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에서 주제(theme) 및 주제 모음(theme cluster)을 확인하여 범주화(category)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 이론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olaizzi 분석방법으로는 6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료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진술을 읽고 둘째, 의미 있는 진술문을 도출하고, 세 번째, 일반적 진술을 과학적인 언어로 만들기 위해 일반적 형태로 재 진술 넷째, 의미 구성도출하고, 다섯 번째는 범주를 조직하며, 주제로 묶고, 마지막으로 주제를 관심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질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인 기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유기준, 최영희, “현장실습에 대한 가치 인식과 만족도가 취업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34에서 재인용.

## 인터뷰 녹취록 순서

## 부록II. 논문인터뷰 질문지 A.(선교사를 위한)

이름:

사역파트:

연령대:

성 별:

사역년수:

이 인터뷰질문지는 풀러 목회학 박사과정(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에서 “**명성기독병원(MCM) 선교사역을 통한 효과적 목회전략**”의 제목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 준비된 ‘인터뷰를 위한 사전 질문지’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참여자를 인식할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 A. 현지 문화소통에 관한 질문

1. 에티오피아에서 문화적 혼란을 겪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지 적응때 언어, 현지생활, 친구사귀기, 동역자와의 관계, 향수 병 등]

2. 에티오피아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에티오피아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단어) [폐쇄적, (개방적), 전통적, 상호존중, 무시, 게으름, 근면, 의존적, 자립심, 배려심, 협동심, 존중심, 등]

3. 에티오피아인이 한국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귀하는 그 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현지문화 때문에 사역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또한 현지에서 기대되  
는 것 무엇인가요? \* MCM과 MCM 밖에서 둘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 B. 의사소통

1. (사역자간 소통: 한국 선교사와 )

\* 의사소통 중,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 어떻게 해결(도움을 받은 지지체계나 대상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하였나요?

2. (사역자간 소통: 제 3국의 선교사 또는 동역자간)

\* 의사소통 중,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은? \* 어떻게 해결(도움을 받은 지

지체계나 대상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하였나요?

**3. (현지인과 소통: 시장, 마켓, 일상적 여가시간에서)**

\* 의사소통 (상사와 동료/현지인과) 중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 있습니까?

\* 어떻게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결(도움을 받은 지체계나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하였나요?

**4. 귀하의 현지어 언어(에티오피아/영어)와 문화의 이해(숙달) 정도를 표기해 주세요**

	상		중		하	
현 지 어	1	2	3	4	5	6
영어or ( )	1	2	3	4	5	6
현지문화이해	1	2	3	4	5	6



(현지 동역자를 위한 논문인터뷰 질문지 B 영문판)

## Interview Questionnaire B.(Ethiopian cooperation minister)

Name: \_\_\_\_\_ Ministry Part: \_\_\_\_\_ Age: \_\_\_\_\_  
 Gender: \_\_\_\_\_ Served Years: from, \_\_\_\_\_ to \_\_\_\_\_

These interview questions are from th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LA. are going to be used for the book "Effective pastoral strategy through mission through Myungsung Christian Medical hospital. Your personal data will be kept secretly and only us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 A. Questions about Cultural Differences

1. While serving at MCM, have you been(did) you experienced any problems communicating because of cultural (or Inter-cultural) differences?
  
2. Describe Korean culture Ethiopian culture by comparing. (What -imaging- of words come up when you think about Korea?) [Introvert(Extrovert), Traditional, ignored, lazy, industrious, independent, self-reliant, caring, cooperation, respect, etc]
  
3.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Culture? Are you positive/negative about it? What is your reason?
  
4. What do you expect and worry about while serving at MCM?

### B. Communications

1. (Communicating with workers: Korean Missionaries)
  - \* Have you ever experienced and difficulties or stress while communicating ?
  - \* If so,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2. (Communicating with workers: Missionaries, European American etc.)

- \* Have you ever experienced and difficulties or stress while communicating in workfiled?
- \* If so,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3. (Communicating with workers(your countray friends): Market in daily leisure time)

- \* Have you ever experienced and difficulties or stress while communicating ?
- \* If so,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4. 귀하의 현지어 언어(에티오피아/영어) 숙달 정도를 아래 표기해 주세요

	상		중		하	
Amharik	1	2	3	4	5	6
English Skill ( )	1	2	3	4	5	6

please write down below your local language proficiency

## 논문인터뷰 질문지 (B 한글판) 영문번역판. (에티오피아 협력 사역자)

이 름: \_\_\_\_\_  
성 별: \_\_\_\_\_

사역파트: \_\_\_\_\_  
사역년수: \_\_\_\_\_

연령대: \_\_\_\_\_

이 인터뷰질문지는 풀러 목회학 박사과정(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에서 “명성기독병원(MCM) 선교사역을 통한 효과적 목회전략”의 제목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 준비된 ‘인터뷰를 위한 사전 질문지’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참여자를 인식할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 A. 현지 문화소통에 관한 질문

1. MCM에서 사역하면서, 문화적 차이로 소통의 어려움 겪어 본 적이 있습니까?

2. 한국문화를 에티오피아문화와 비교하여 설명해보세요?(한국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단어)[폐쇄적, (개방적), 전통적, 상호존중, 무시, 게으름, 근면, 의존적, 자립심, 배려심, 협동심, 존중심 등]

3. 당신은 한국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부)정적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4. MCM에서 사역하면서 한국에 기대하는 것과 염려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B. 의사소통

#### 1. (사역자간 소통: 한국선교사와)

\* 의사소통 중,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도움을 받은 지지체계나 대상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하였나요?

#### 2. (현지인과 소통:제 3국 선교사:유럽,미국등)

\* 의사소통 (상사와,동료/현지인과) 중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 있습니까?

\* 어떻게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결(도움을 받은 지지체계나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하였나요?

### 3. (현지인과 소통:시장,마켓,일상적 여가시간에서)

- \* 의사소통 (상사와,동료/현지인과) 중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 있습니까?
- \* 어떻게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결(도움을 받은 지지체계나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하였나요?

### 4. 귀하의 현지어 언어(에티오피아/영어) 숙달 정도를 아래 표기해 주세요

	상		중		하	
현 지 어	1	2	3	4	5	6
영어or ( )	1	2	3	4	5	6
동역자/한국문화이해	1/1	2/2	3/3	4/4	5/55	6/6

아래는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이다.

- \* 당신은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더 사역할 계획입니까?
- \* 현장 적응능력에 대해 대인의사소통 능력 확대에 관해 배우고 싶습니까?
- \* 언어를 정확히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배운적 있다면, 몇 년을 배웠습니까?
- \* 팀워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동료들과 주로 협력하여 어려운 일을 함께 해 나간 경험이 있다.
- \*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다면, 전공과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가요?
- \* 당신이 앞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까? 만약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라면 할 계획이 있나요?
- \* 개인적 성격의 성향은 어떤 편입니까? 나는 1:1의 관계성을 중요시, 나는 많은

사람과 있는 것이 좋다. 나는 소극적, 적극적 어느 편인가요?

\*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합니까?

**\* 후원교회의 운영위원회 사역자에 관한 질문**

1.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면, 한국문화와 에티오피아의 문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2. 선교현장에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매개체는 무엇인가요? 이메일, 편지, 한국 방문 시에, 또는 직접 선교지를 방문할 때 주로 대화한다.
3. 에티오피아에 있는 선교사(현지인 포함)와의 소통 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MCM 과 메시지를 전달할 때 소통의 가장 어려움이 있는 사역파트는 어디인가요?  
그 소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해 본적이 있습니까?

## 참고 문헌

### 1. 국내 서적

- 김구.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2판. 서울: 비엔엠북스, 2011.
- 김선태. *선교복지학개론*. 서울: 카이로스, 2006.
-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김승연. *서구 교회의 몰락과 한국 교회의 미래 상: 유럽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 김승태. *한말·일제강점기선교사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 김진년. *미래사회와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서울: 성지출판사, 1999.
- 김진석.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다문화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2015.
- 명성교회 대외협력부. *MCM 백서*. 서울: 명성교회도서출판부, 2015.
- 명성교회 대외협력부. *MCM Love Ethiopia Love Africa 화보집*. Seoul, MCM & Myungsung Medical College, 2013.
- 명성교회. *새벽기도 새벽눈물*. 실로암, 2014.
- 명성교회. *제4회 2013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 신학저널*. 자연DPS, 2013.
- 명성교회 행정처. *2013년 정책당회 자료집*. 2013.
- 명성교회 해외선교부. *Global Mission 해외선교 화보집*. 2006, 2008, 2011.
- 명성교회 30년사 편찬위원회. *주님의 옷자락 잡고: 글로 읽는 명성교회 30년*. 서울: 명성교회, 2010.
- 백혜진, 이해규 공저.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수용자·미디어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8.
- \_\_\_\_\_. *선교신학에서 본 사회봉사*. 서울: 한울, 1992.
- 손창남. *문화와 선교: 영광스러운 복음·효과적인 전달*. 서울: 조이선교회, 2014.
- 송의광. *에디오피아의 새벽을 깨우다: 명성기독병원*. 아남카라, 2013.

- 승실대기독교사회연구소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 심재두. *선교사 팀 사역과 갈등 해결*. 서울: 좋은 씨앗, 2016.
- 이종우. *선교·문화 커뮤니케이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이창덕 외. *삶과 화법: 행복한 삶을 위한 화법탐구*. 서울: 박이정, 2009.
- 전우택 외. (의료선교사가 현장에서 쓴) *의료선교학*.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2014.
- 한국원목협회. *한국원목협회 50년사*. 서울: 코람데오, 2013.

## 2. 번역 서적

- Arnold, J. Heinrich. *공동체 제자도(Discipleship)*. 원충연 역. 서울: 홍성사, 2010.
- Bevans, Stephen B. *상황화 신학 (Models of Contextual Theology)*. 최형근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2002.
- Chew, Jim. *타문화권 선교. (When You Cross Cultures)*. 한국네비게이트 역. 서울: 네비게이트, 1993.
- Dodd, Carley H. *문화를 초월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임헌만 역. 서울: 그리심, 2008.
- Ewert, Merrill. *의료선교를 위한 새로운 전략: 의료선교의 과제와 전망 (A New Agenda for Medical Missions)*. 오상백, 변창욱 역. 서울: 예본출판사, 1999.
- Hesselgrave, David J. *선교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채은수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3.
- Hiebert Paul G. *선교와 문화인류학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외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6.
- Kane, J. Herbert.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백인숙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6.
- Kraft, Charles H.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성육신과 상황화 원리 (Appropriate Christianity)*. 김요한 외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 \_\_\_\_\_.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Jesus, God's Model for Christian Communication)*. 김동화 역. IVP, 1991.

- \_\_\_\_\_. *기독교와 문화 (Christianity in Culture)*. 임윤택, 김석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_\_\_\_\_. *기독교 문화인류학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안영권, 이대현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5.
- \_\_\_\_\_.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1.
- Meyers, Marion. *관계의 ABC (ABC's of Relationship)*. 강선규 역. 서울: 킹덤하우스, 2011.
- Underwood, Lillias S. H. *조선견문록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김철 역. 서울: 좋은 씨앗, 2016.

### 3. 외국서적

- Bruce, C. E Fleming. *Contextualization of Theology: An Evangelical Assessment*.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80.
- Hesselgrave, David J., Edward Rommen. *Contextualization, Meaning, Methods, and Model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y, 2000.

### 4. 학위논문

- 강은철.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선교접촉점 개발과 복음전도.” 풀러신학교 목회학박사 학위, 2002.
- 김민철. “선교의료의 상황화적용에 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수진.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2010.
- 신정선. “지역교회에서의 사회봉사훈련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2011.



## 5. 저 널

김상근. “위대한 치료자(The Great Physician)를 본받아: 의료선교의 현주소와  
선교학적 과제,” *신학논단* 49 (2007): 177-211.

김선희. “모유수유 적응 측정 도구 개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2 (2009): 259-269.

배성석, 오창석 공저. *기독교세계관에서 본 한국 기독교병원의 방향*. 로고스 경영연구  
vol.4, 2006.10.

송미경 외.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2  
(2008): 497-517.

유기준, 최영희. “현장실습에 대한 가치 인식과 만족도가 취업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관련 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5:2 (2013): 27-55.

이노미.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본 조선과 서구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3호 (2008): 155-182.

정금희, 김신정. “어머니의 수유방법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여성건강가정학회지* 6:2  
(2000): 203-217.

Vita of  
Jong Hye Ba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Sebit Myungseong Presbyterian Church in Guri City

Personal Data:

Birthdate:	February 15, 1963
Marital Status:	Married to Soo Jung Moon with one son and two daughters
Home Address:	202 GalMeShunWhan-ro Guri City, Korea
Phone:	(031) 592-0692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rdained:	April 20, 1999

Education:

B. A.:	YOUNG NAM University, Daegu, Korea, 1989
M. 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4
M. A.: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egu, Korea, 1997
Th. M.:	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Lynchburg, VA, USA, 2005
Th. M.: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5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USA 2017

Personal Experience:

2010 to 2016:	Assistant Pastor, MyungSung Presbyterian Church, Seoul
1998 to 2010:	Missionary to Indonesia sent by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96 to 1997:	Evangelist, Arumdaun Church, Seoul, Korea
1995 to 1996:	Evangelist, Jusarang Church, Seoul, Korea
1992 to 1994:	Evangelist, SungNam Church, Sungnam, Korea
1990 to 1991:	Evangelist, GuanMun Church, Daegu, Korea
1982 to 1985:	Korean Army, Daegu, Korea